

새터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생활 및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

본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광주지역사무소와
외부전문가 그룹이 TFT를 구성하여 연구한 보고자료입니다.
(연구기간 : 2007. 6. 15 ~ 2007. 10. 15)

요 약 본 / 7

제 1 장 서 론 / 23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25

제2절 연구내용 / 28

제 2 장 새터민 지역사회 적응현황과 인권관련 선행연구 / 29

제1절 새터민 현황과 특성 / 31

1. 새터민에 대한 개념 / 31
2. 새터민 입국현황과 특성 / 32
3. 우리사회에서의 새터민의 현황 / 37

제2절 지역사회 적응 현황 / 41

1. 초기입국 / 41
2.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 교육 / 41
3. 정착지에서의 적응 / 42

제3절 새터민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 / 49

제 3 장 연구방법 / 53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의 절차 / 55

제2절 분석방법 / 55

제 4 장 연구결과 / 57

제1절 광주, 전·남북, 제주 거주 새터민 현황 / 59

1. 사회인구학적 특징 / 59
2. 혼인유형 / 61
3. 직업과 경제적 형편 / 62
4. 남한 외 거주가족 / 65

제2절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 67

1. 소속감과 정체성 / 67
2. 이주계획 / 69
3. 거주지 결정 / 70
4. 거주지에서의 교류 / 74

제3절 인권과 사회보장 관련사항 / 76

1. 인권과 차별관련 사항 / 76
2. 사회보장에 대한 사항 / 83

제4절 결 론 / 85

참 고 문 헌 / 87

설 문 지 / 89

| |
|-----|
| 표 순 |
|-----|

- <표2-1> 새터민 입국 현황 / 32
 - <표2-2> 연령별 새터민 입국자 수 분포 / 33
 - <표2-3> 성별과 그 비율로 살펴본 새터민 입국 현황 / 34
 - <표2-4> 가족단위 입국의 추이 / 34
 - <표2-5> 연령별 분포 / 35
 - <표2-6> 탈북동기별 현황 / 35
 - <표2-7> 북한에서의 학력 / 36
 - <표2-8> 재북 직업별 현황 / 36
 - <표2-9> 재북 직업별 새터민 입국현황 / 37
 - <표2-10> 새터민의 주거형태 / 37
 - <표2-11> 새터민 월평균 소득 / 38
 - <표2-1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 / 38
 - <표2-13> 취업형태 / 38
 - <표2-14> 직종별 취업현황 / 39
 - <표2-15> 직업교육훈련 인원/ 고용지원금 지원에 따른 취업자 수 / 40
 - <표2-16> 하나원의 교육과정 / 41
 - <표2-17> 보호담당관의 지원 / 42
 - <표2-18> 새터민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 단계별 내용과 협조기관 / 43
 - <표2-19>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 44
 - <표2-20> 정착지원금 지원 내역 / 46
 - <표2-21> 거주 지역별 현황 / 46
 - <표2-22> 새터민의 사회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48
 - <표2-23>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새터민 현황 / 48
 - <표4-1> 사회인구학적 요인 / 59
 - <표4-2> 가족구조 / 60
 - <표4-3> 새터민 결혼유형 / 61
-

-
- <표4-4> 직업과 소득 / 63
 - <표4-5> 새터민 가족의 경제적 형편 / 64
 - <표4-6> 남한 외에 거주하는 새터민의 가족현황 / 66
 - <표4-7> 새터민의 소속감 / 67
 - <표4-8> 민족적 정체성 / 68
 - <표4-9> 국제경기에서 응원하는 팀 / 68
 - <표4-10> 이주 계획 /69
 - <표4-11> 남한사회 거주 이유 / 70
 - <표4-12> 입국 전 거주 국가 / 71
 - <표4-13> 입국 전 거주 국가 수 / 71
 - <표4-14> 거주지 결정 관련사항 / 72
 - <표4-15> 거주지 이전에 대한 희망 / 73
 - <표4-16> 거주지에서 제공받은 도움 /74
 - <표4-17> 지역사회에서의 지원네트워크 / 75
 - <표4-18> 공동체의식 / 76
 - <표4-19> 새터민 호칭에 대한 반응 / 77
 - <표4-20> 남한사회에서 새터민 차별 / 77
 - <표4-21> 새터민이라는 사실로 인한 차별경험 / 78
 - <표4-22> 신분에 대한 알림정도 / 79
 - <표4-23> 차별에 대한 경험 / 80
 - <표4-24> 차별경험에 대한 호소 방법과 대처 / 81
 - <표4-25>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 / 82
 - <표4-26> 차별의식 정도 / 83
 - <표4-27> 각종제도의 이용과 활용 정도 / 84
-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새터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한 생활 및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았다.

1. 우리사회에 급격하게 증가한 새터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 ▶ 입국현황, 여성 증가 추이 (특징적), 가족동반 추이, 연령별 분포, 직업현황, 거주지역 현황 등을 통해 광주·전남·북·제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 ▶ 새터민들의 현재의 생활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유형, 탈북관련 가족사항, 경제적 사항과 직업과 소득에 대해 살핀다.
2. 남한사회에 입국에서 부터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새터민들이 지역사회 생활세계에서 정착을 위한 적응정도는 어떠한지, 우리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새터민 상당수가 북한-중국-남한 등의 경로를 통해 현재의 거주지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이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본다. 앞으로의 생활을 유지·지속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과는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류하는지를 알아보았다.
3. 소수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소수자들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북의 대립관계에서 체제우월성을 입증하는 사람들로서의 도구적 가치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사회통합 과정을 사전적으로 보여주는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존재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특수성이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권보호와 함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권에 대해 새터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제 1 절 전·남북, 제주 거주 새터민 현황

1. 사회인구학적 특징

- 본 연구대상자들을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종교와 주거형태로 살펴본 결과,

우선,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1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4%를 차지하고, 남성은 44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비율은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35.6%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40대 28.5% 그리고 20대가 17.9%의 순이었다. 10대와 60대 이상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지에 응답할 수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전남, 전북, 제주에 거주하는 비율과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 새터민들의 절반 이상인 65.3%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종교활동 등을 하는 새터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은 기독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불교 그리고 기타는 모두 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 새터민들의 주거형태는 응답자의 많은 수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 외 월세 6.7%, 전세 3.0%, 그리고 자택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 가족구조로 살펴본 새터민 응답자의 분포는, 새터민들은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41.0%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비율은 25.4%였다. 부모 중 한사람과 자녀가 살고 있는 편부모 가족의 비율이 11.9%를 나타냈고, 부부만 살고 있다는 응답이 10.4%였다. 그 외에는 형제와 살고 있거나(3.0%), 부모와 살고 있거나 혹은 본인과 부모, 형제가 살고 있다는 응답이 같았고(2.3%), 3세대가족인 조부모와 부부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3.7%)도 있었다.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41.0%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혼자 살고 있는 새터민들보다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본 연구결과 알 수 있었다.

2. 혼인유형

-응답자들의 혼인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혼인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106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이들의 혼인유형은 매우 다양한 것을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북한에서 결혼한 경험의 유, 무로 살펴보았을 때,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48.4%, 없다는 비율이 26.8%였다. 북한에서 결혼해서 남한에서도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17.5%로 제일 높았다. 북한에서 결혼했으나 혼자 와서 다른 나라 배우자를 맞은 경우가 15.5%, 북한출신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가 11.3%였다. 북한에서 혼자 와서 다시 결혼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남한 출신인 경우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에서는 미혼이었으나 남한에 와서 결혼한 새터민들 중에는 북한출신 배우자를 맞은 비율이 16.5%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남한출신 배우자로 6.2%, 그 다음이 다른 나라 배우자가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24.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들의 가족구조와 결혼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형성한 가족이 탈북과 입국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겪는 과정이 가족구조와 결혼유형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업과 경제적 형편

1) 새터민 직업관련

- 응답자의 직업과 관련된 직업유무, 종사하는 직업 종류 그리고 직업만족도와 소득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의 60.5%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39.5%의 새터민들 중 생산/기능/노무직과 같은 단순기술직에 31.7% 그리고 판매/서비스 종사자와 같은 서비스 영업직에 30.1%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사무직에 17.5% 그리고 시간제취업에 12.7%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나 경영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5%미만으로 각각 3.2%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불만족스럽다(22.3%)보다는 만족스럽다(30.1%)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47.6%를 차지하였다.

- 현재 종사하는 직업에서 얻는 소득의 평균은 90만원이었다.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9.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에서의 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15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였으나 실제 그 응답자수는 5명에 불과한 것을 <표 4-4>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조사결과, 가족의 한 달 평균수입은 91만원이었으며 최소 수입은 25만원 그리고 최대 수입은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이라고 하지만 그 분포는 개인의 수입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이 가족의 한 달 평균수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비슷한 비율인 34.3%를 보이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었다. 15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13.6%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9.0%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6.9%로 개인소득보다 그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 가족의 수입을 구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응답자들은 복수로 응답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99명(51.4%)이 정부로부터의 도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의 근로소득에 65명(33.7%) 그리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20명(10.4%)이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가 171명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응답자 중 58%는 정부로부터의 도움이 가족수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본인이 일을 해서 가족수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충당하는 경우는 38%, 경제적 활동을 하는 배우자나 가족이 수입을 제공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였다.

- 가정이 부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인 171명 중 12%인 21명만이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부채액은 701만원이었고, 그 범위는 100만원에서 3500만원이었다. 부채액의 분포를 살펴보자면 9명이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라고 응답하였고, 8명이 5백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39%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13.8%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8%를 차지하였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에서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1.9%였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별 지장이 없다는 응답은 54명으로 34.0%였다.

4. 남한 외 거주가족

- 현재 남한 외에 거주하는 새터민의 가족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66명의 응답결과 중 북한이나 제3국에 가족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남한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반 이상인 56.4%가 형편이 나아지면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였고,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였다. 지금 떨어져있는 가족을 남한으로 불러오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를 차지하고 있었다.

- 현재 남한 외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연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수는 27명으로 전체의 15.8%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여부를 물었을 때,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응답한 수는 48명으로 28.1%를 차지한다.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4명으로 37.4%를 나타내고 있으나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도 34.5%를 보인다.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응답자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10만 원대가 34.8%, 20만 원대와 10만원 미만이 같은 비율인 21.0%, 다음이 40만원대로 11.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5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응답은 10%미만으로 50만원대가 7.0%, 60만 원 이상이 2.3%였다.

- 위의 응답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7명이었으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48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나 누군가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제 2 절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1. 소속감과 정체성

1) 새터민 소속감

- 새터민들의 소속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46.2%인 78명이 남한과 북한 두 나라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 본인을 남한사람이라고 대답한 수는 65명으로 38.5%였으나, 북한 사람이라고 응답한 수도 26명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한으로 이주하였음에도 본인의 민족적 정체성은 아직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1.6%를 차지하고 있

었다. 물론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비율이 더 높아 84.7%의 응답자가 남한 사람 혹은 적어도 남한에 소속해 있는 것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2) 새터민의 정체성

- 남한으로의 이주경험이 새터민의 정체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71.8%로, 내가 사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84.5%)와 내 삶의 주인은 나다(90.0%)에 대한 응답보다는 조금 낮았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도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1.8%로 다른 응답들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경기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응원하는가를 물어서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과 북한이 경기를 하는 경우, 응답자의 45.9%는 남한을 응원한다고 하였으나 북한을 응원한다는 비율은 29.4%였다. 잘 모르거나 응원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24.7%를 보였다. 남한과 중국 혹은 남한과 다른 나라가 시합을 할 때, 새터민들은 모두 남한을 응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시합을 할 때, 90.1%(중국과의 경기에서)와 92.0%(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응답했다.

-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남한과 북한이 시합을 하게 될 경우, 남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시합을 하게 될 때, 새터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2. 이주계획

-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진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57명은(33.7%)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로 이주하고 싶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절반 가량인 47.4%가 중국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보인 나라는 미국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었다.

- 북한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갈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19.3%에 해당하는 11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63.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

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하였다.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한 응답자의 대답은, 우선 남한이 좋아서 거주한다는 질문에 97.6%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느 곳에 가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질문에 91.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긍정적인 대답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어서'로 5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는 73.2%, 그리고 '남한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는 71.5%가 긍정적인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새터민들이 남한에 거주하는 이유로는 우선 남한이 좋아서에 가장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 다음이 어느 곳에 가도 큰 차이가 없어서 남한에 거주한다고 대답하였다.

3. 거주지 결정

- 거주지에서의 적응을 살펴보기 전 남한에 들어오기 전 거주했던 나라를 있는 대로 모두 답해달라는 응답에 대해서 응답국가의 82.7%가 중국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가 166명임을 감안한다면 응답자의 95.2%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체류했던 국가수를 살펴보면 1개국인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4.6%를 차지하고 있었다. 2개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새터민의 비율은 4.2%이고, 3개국을 거쳤다는 응답자는 1.2%를 차지하였다.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선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36.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31.0%는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인이 결정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에서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 그리고 진분이 있는 사람의 추천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14.1%로 나타났다.

-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수 이상인 58.6%의 응답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1%에 불과하였고, 설명을 들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가 10.7%,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다가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은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11.2%를 차지하였고(별로 불만족 9.4%, 매우 불만족 1.8%), 만족한다는 응답은 63.0%를

차지하였다(매우 만족 25.9%, 그런대로 만족 37.1%).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혹시 거주지를 이전하려고 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느끼는 자유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3.6%로 나타났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25.8%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는데 전체의 40.7%를 차지하였다.

- 응답자들에게 혹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고, 그렇다라는 응답을 한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되는 48.2%를 차지하였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로 나타났는데, 43.9%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지역에 친한 사람이나 친척이 살고 있다는 응답이었고, 23.2%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교육을 이전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17.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9.8%를 차지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응답이었다. 이웃과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에는 단지 2명이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전체 응답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옮기고 싶었으나 계속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장애가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었고, 전체 응답의 32.5%가 이에 해당하였다. 허락을 받기 어렵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23.8%였다. 그 외의 이유로 응답자들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일 것에 15.0%, 현 거주지에서의 학업으로 10.0%, 경제활동 때문에 8.8%,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5.0%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4. 거주에서의 교류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에서는, 새터민들이 가장 많음 도움을 받은 일은 정착에 필요한 업무해결이었다. 도움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하였고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57.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지에 대한 정보제공이었다. 도움을 받았다가 46.9%, 도움이 없었다가 24.7%를 차지하였다.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지역시설 이용안내로 42.8%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이나(37.4%), 가정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6.6%)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의 지원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본 결과, 새터민들은 이웃과의 지원망이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활발한 지원 활동은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것으로 36%가 하고 있었으나 64%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아플 때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이었으나 65.8%가 하지 않는다는 34.2%가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웃집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이었으나 32.9%가 한다고 응답하였고,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1%를 차지하였다.

-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인 집을 보아주거나(14.7%) 혹은 돈을 빌리거나(19.3%)와 같은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생활용품이나 가사 도구 등을 빌리는 일을 한다는 비율도 30.0%로 그다지 적극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조사결과 살펴볼 수 있다.

- 새터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살펴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이수에게 좋은 일이 내게도 좋은 일이라는 응답에 81.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웃들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도 74.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65.8%는 노력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웃이 도와줄 것(46.6%) 혹은 대화하고 싶을 때 이야기 상대를 찾는 일(45.9%)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상황에 도와 줄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 3 절 인권과 사회보장 관련 사항

1. 인권과 차별 관련 사항

- 이전에는 '탈북주민'이라는 호칭이 사회적 낙인을 내포하고 있어서 '새터민'이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만족한다(26.4%), 만족하지 않는다(23.4%)이며, 그저 그렇다(46.2%)로 조사되었다.

-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일차적이다. 새터민들의 경우, 우리사회에 입국하여 정착지를

배정받고 거주지에서 생활을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사람들로 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본 결과, 차별을 하지 않는다(20.5%), 보통이다(20.5), 차별을 하고 있다(59.1%)로 새터민 상당수가 지역사회에서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위축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가까운 주변사람들 중에 누가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본 물음에 대한 답은, 1차적 관계인 배우자, 친척, 이웃, 친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차별한 경험은 17% 이하로 나타났으며, 2차 사회적 관계인 직장상사 및 동료, 구·시청 공무원 및 경찰 관계자는 20% 이상이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 기관의 담당자, 학교 교사, 의사·약사, 종교 관련자 등에 의한 차별경험은 아주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다.

-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새터민이라는 본인의 처지를 어떻게 알리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떳떳하게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만난다(52.9%),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때 북에서 왔다고 말한다(25.3%)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구분하면 당당하게 밝힌다(52.7%), 할 수 없이 알린다(47.1%)로 조사되었다.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당당하게 알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이 묵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차별이란 특정한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에서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차별을 받는 여부와 어느 부분에서 차별이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항목별로 알아보았는데, 직업이나 직장 구할때의 차별(52.1%), 같은 일을 해도 남한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는 임금차별(33.6%), 승진차별(30.2%)순으로 조사되었다. 새터민들은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차별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차별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냥 묵묵히 참음(35.0%), 직접 항의(23.3%),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13.5%), 교회나 절, 성당에 가서 기도(12.3%)순이며, 이를 적극적 호소(직접항의, 인권단체에 신고)와 수동적 호소로 구분하면 적극적 호소(27%), 수동적 호소(64.1%)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비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새터민들 중에 참거나 숨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55.2%),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기 때문에(34.5%)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면, 차별에 대해 신고하거나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조사 받고 불려 다닌다는 생각과 호소에 대한 결과가 무의미하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새터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각 기관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결과표는, 차별을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할 당사자는 새터민 본인들(82.5%), 정부기관(77.8), 남한사람들의 이해(70.8%), 지방자치단체(64.6%), 시민사회단체(63.4)로 조사되었다. 이는 새터민들의 차별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터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지원과 많은 사람들이 새터민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보내는 것이며 이들의 삶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새터민 스스로가 생각하는 차별의식 의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사항들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 결과, 이에 대한 결과는, 새터민도 일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 결정하고 정당한 보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보장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85.9%), 새터민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84.7%), 생김새나 말투가 다르다고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84.7%),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82.4%), 새터민도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81.2%), 성별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81.0%).

- 새터민에게도 국내,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79.4%), 새터민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76.9%), 새터민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강제적인 의학적 검사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71.6%), 소수집단이나 이주민, 선주민 등 주류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53.3%) 순이다. 이는 생존을 위한 노동권 보장, 건강보호를 위한 평등한 의료권 보장, 외모로 인한 차별 금지, 교육 및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보호 등으로 조사되었다.

2. 사회보장에 대한 사항

-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 입국하여 지역사회 정착하고,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질적 열악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권과 관련되며 제도적인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새터민들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해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알아보았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 순으로는 정착금, 생계급여, 의료보호, 주택지원, 정착가산금 순이며, 주택교환, 취업장려금, 취업보호제도, 직업훈련(무상), 학비면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는 그 이용이 아주 미비하였다.

- 특히 교육의 기회가 개선되어야만 인권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지만 대학입학특례의 이용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각종 제도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의 원인도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각종사회제도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와 신청시의 절차나 사후 수습방안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용에 불편함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결 론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과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지역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는 첫째, 우리사회 구성원들과 새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공동체 프로그램의 강화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터민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새터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전담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한사회 사람들이 새터민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에서 넘어온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터민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 새터민들과 남한사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터민 스스로가 가지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성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남한 사람들의 선입견은 불식되고 이러한 노력이 강한 강력한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의 노력으로는

첫째, 생존할 수 있는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이다. 새터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직장을 구할 때 차별을 당하고, 임금차별과, 승진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삶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터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발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체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 탈출- 중국- 한국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신과 은둔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경험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훈련되고 현실적응에 단련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새터민들에 대한 공간적 배제에서 오는 인권침해의 개선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새터민의 주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영세민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공간적 소외 지역으로 이곳의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나름의 공간문화가 형성된 지역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새터민 86%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새터민에 대한 공간적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현행제도의 주택지원 정책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의 주택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적 차별과 인권침해이다. 우리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정책으로 대학특례입학이나 각 부분에 대한 할당제가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새터민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만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990년 후반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 148명이 입국하였고, 2002년 1,142명에서 2006년 말 기준 약 9,0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2006, 통일부). 이는 북한사회가 최근 몇 년 간 수해와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 누적과 생산력 저하 등으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사회기강 해이, 북한의 정체체계에 대한 환멸, 외부사회에 대한 정보의 획득,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김영수, 2003) 남한사회에 입국하려는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우리사회로 입국하기 전 제3국(주로, 중국)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생활은 매우 비참하고, 공안들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두려움과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와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임금을 착취당하거나 불법감금을 당하는 사례도(윤인진, 2000)빈번하다. 이러한 경험들이 남한사회 입국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사회에 입국하여도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서적 차이로 인해 또 다른 불안과 새로운 환경 적응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전우택, 2006).

우리사회에서는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통일부 산하에 전담기관을 두어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문화를 체험하게 한 후,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함으로써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들을 '새터민'으로 지칭하고 각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게 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된 새터민들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이들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들을 정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¹⁾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마련하였지만(윤인진, 1999)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에 필요한 심리적 대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전우택, 2000). 이들의 삶이 우리사회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이질적인 생활과 입국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안과 불신은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갈등 등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한 물질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2006). 설령, 적당한 직장이 있어 경제

1) 사회적응 기관 설립이나 정착금 지원과 같은 경제적 보상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의미함.

적 문제가 없는 새터민의 상당수도 정신적 부적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윤인진, 1999a). 이는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통합되기 어려운 점은 가치관의 차이로 우리사회 사람들의 배타적인 태도, 지식과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기대와 좌절감, 문화적 차이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우택, 1997). 그러므로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총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어려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역기능 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관계의 문제가 뒤얽혀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낙인과 정치, 행정적인 요소, 사회변동의 형태와 속도, 그리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문제까지 얽혀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주지 중심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연구이다.

이는 새터민들이 우리사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기초 작업으로써 삶의 터전에서 일상생활을 유지·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속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소속감과 연대감과 같은 의미로서 이는 가치관도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의 구성요소와 단위는 가치, 가치지향, 가치체계, 가치관 등 각 차원의 목표가치, 표준가치, 도덕가치, 미적가치로 파악되며, 실제적으로 사회가치는 사람들의 태도, 판단,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은 사회에 대한 태도와 내용을 규정하고 실천의 동기가 되며 사회집단이 지향하는 가치체계를 이루게 된다(박세영, 2002). 그러므로 이들의 통합을 위한 실천방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치관은 삶의 과정에서 학습되고 체득되므로 지나한 삶의 역정에서 인식된 의식이 중요하다.

먼저 새터민과 우리사회 구성원들 간에는 의식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공통점으로는 한민족이라는 강한민족의식과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유교적 가치관이 전승되었거나 잔존하고 자족적, 온정적 연대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으로 이념체계의 차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주의를 지향한다는 것과 우리사회가 개인의 권리중심의 개인적 도덕관과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데 반해 북한

은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집단주의적 도덕관을 가지고 혁명적 사고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근대화 지향적이며 북한사회는 전통 지향적이며, 선호하는 가치순위에 있어서도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행복한 가족관계” “편리한 삶” “자유” “타인의 인정” “국가의 인정”인데 반해, 북한 사람들은 “국가의 발전” “평등” “편안한 삶” “행복한 가족관계” “자유”순으로(김영만,2003) 다양한 측면에서 이질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동질성 보다는 이질적 측면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는 인권의식일 것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고, 누구나 공유하여야할 보편적 가치²⁾로서 어느 한 측면이 침해 될 경우 다른 권리도 그와 연관되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인식하는 인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본 결과,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 “사회보장(최소한의 생계 보장)”,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소수문화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와 안전”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유지웅, 2006).

이러한 경험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며 순간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연속성에서 오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조사와 실태파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의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의 현재의 생활과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광주·전남·북·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우리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찾고, 안정되고 지속적인 삶의 영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활 및 인권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1948) “제2조 모든 인간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 또는 그 밖에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다른 지위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고 언급되어 있다.

제 2 절 연구내용

새터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한 생활 및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았다.

1. 우리사회에 급격하게 증가한 새터민의 현황을 살펴본다.
 - ▶ 입국현황, 여성 증가 추이 (특징적), 가족동반 추이, 연령별 분포, 직업현황, 거주 지역 현황 등을 통해 광주·전남·북·제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 ▶ 새터민들의 현재의 생활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유형, 탈북관련 가족사항, 경제적 사항과 직업과 소득에 대해 살핀다.
2. 남한사회에 입국에서 부터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새터민들이 지역사회 생활세계에서 정착을 위한 적응정도는 어떠한지, 우리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새터민 상당수가 북한-중국-남한 등의 경로를 통해 현재의 거주지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이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본다. 앞으로의 생활을 유지·지속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과는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류하는지를 알아본다.
3. 소수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소수자들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북의 대립관계에서 체제우월성을 입증하는 사람들로서의 도구적 가치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사회통합 과정을 사전적으로 보여주는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존재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특수성이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권보호와 함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권에 대해 새터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



제 2 장 새터민 지역사회 적응현황과 인권관련 선행연구

제 1 절 새터민의 현황과 특징

1. 새터민에 대한 개념

북한을 탈출하여 어디든 북한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북한 탈주민이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³⁾를 의미하며,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어에 대한 해설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의지 여부를 불문하고 북한지역을 벗어났건, 북한이외의 지역에 특수목적 위해 파견·투입되었거나 북한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게 된 북한주민을 통칭한다.

북한이탈 주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월남귀순자’, ‘귀순북한 동포’, ‘탈북자’, ‘자유북한인’, ‘자유이주민’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중 귀순의 경우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을을 버리고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남·북한의 체제 경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귀순자’라는 표현이 북한지역을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 남한지역에 들어온 경우만을 지칭했다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개념은 남한지역에 들어온 경우는 물론이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보다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탈북자’ 자신들이 이 표현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새터전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내포된 용어인 ‘새터민’으로 지칭하게 되었다(통일부, 2004).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터전을 일구어가는 새터민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이들에 대해 우리사회 구성원이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용어를 ‘새터민’으로 정리하나 전체적인 의미전달을 위해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경우 부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 새터민 입국현황과 특성

1) 새터민 입국현황

새터민의 입국은 1999년을 시작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 천명이 넘는 많은 수가 매년 입국하고 있다. 이러한 새터민의 입국 수 증가는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경우의 수가 증가하고 더불어 이미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한다(정주신, 2007). 2007년 말까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새터민은 9,70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입국현황은 <표 2-1>을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2-1> 새터민 입국 현황

| 구분 | ~89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계 |
|----|-----|-----|----|----|----|-----|-----|-----|------|------|------|------|------|------|
| 전체 | 607 | 127 | 56 | 86 | 71 | 148 | 312 | 583 | 1139 | 1281 | 1894 | 1383 | 2019 | 9706 |
| 남 | 564 | 115 | 43 | 56 | 53 | 90 | 180 | 294 | 514 | 468 | 625 | 422 | 486 | 3910 |
| 여 | 43 | 12 | 13 | 30 | 58 | 18 | 132 | 289 | 625 | 813 | 1269 | 961 | 1533 | 5796 |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2007)

2) 새터민 입국의 특징

새터민 입국의 특징은 입국수의 증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9년 이후 청, 장년층의 입국 비율의 증가이다. 일관성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비율의 증가를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청장년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보다 그 이후 40대 미만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었으나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연령별 새터민 입국자 수 분포

| 연 령 | 2000년 | | 2000-2005.6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10세미만 | 18 | 2.2 | 152 | 2.6 |
| 10대 | 30 | 3.6 | 625 | 10.8 |
| 20대 | 89 | 10.6 | 1,398 | 24.2 |
| 30대 | 191 | 22.8 | 2,014 | 34.9 |
| 40대 | 99 | 11.8 | 946 | 16.4 |
| 50대 | 103 | 12.3 | 293 | 5.2 |
| 60대 | 197 | 23.5 | 338 | 5.9 |
| 70대 | 92 | 11.0 | | |
| 80대 이상 | 18 | 2.2 | | |
| 총계 | 837 | 100.0 | 5776 | 100.0 |

출처: 2000년 자료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 현황자료 2000
2000-2005.6월 자료는 2005 국정감사 자료집

둘째, 여성 새터민 비율의 증가이다. <표 2-3>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2000년까지는 남성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입국자의 비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2001년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다가 2002년 이후에는 여성입국자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여성이 이미 69.5%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여성이 75.9%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까지의 자료에서 남자 새터민의 수(564명)는 여자 새터민(43명) 수의 13배 이상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이 보여주는 수치는 여성의 입국자수는 남성의 수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량의 가족 탈북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며, 여성으로서의 근면함이나 자활의지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정주신, 2007).

〈표 2-3〉 성별과 그 비율로 살펴본 새터민 입국 현황

| | | | | | | | | | | | | | | |
|----|------|------|------|------|------|------|------|------|------|------|------|------|------|------|
| 구분 | ~89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계 |
| 남 | 564 | 115 | 43 | 56 | 53 | 90 | 180 | 294 | 514 | 468 | 625 | 422 | 486 | 3910 |
| 비율 | 92.9 | 90.1 | 76.8 | 65.1 | 74.6 | 60.8 | 57.7 | 50.4 | 45.1 | 36.5 | 33.0 | 30.5 | 24.1 | 40.3 |
| 여 | 43 | 12 | 13 | 30 | 18 | 58 | 132 | 289 | 625 | 813 | 1269 | 961 | 1533 | 5796 |
| 비율 | 7.1 | 9.9 | 23.2 | 34.9 | 25.4 | 39.2 | 42.3 | 49.6 | 54.9 | 63.5 | 67.0 | 69.5 | 75.9 | 59.7 |
| 전체 | 607 | 127 | 56 | 86 | 71 | 148 | 312 | 583 | 1139 | 1281 | 1894 | 1383 | 2019 | 9706 |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2007)

셋째, 여성 새터민의 비율증가에서도 언급되었으나 가족동반 입국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휴전선을 넘어 귀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족 동반 입국은 거의 불가능하였다(정주신, 2007). 따라서 1990년 이전의 가족탈북은 1987년 11명이 함께 귀순한 김만철씨 가족이 유일한 사례로 보고된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탈북이 늘어나면서 가족동반 탈북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주신(2007)의 설명에 의하면 가족동반 탈북은 북한에서 가족원이 함께 탈북하기 보다는 일단 선발 가족원이 우선 중국으로 탈북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나머지 가족들이 탈북하여 중국에서 합류하는 경향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3년에는 전체 입국자 1,281명중 가족동반 비율이 44%에 달하는 56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4>참조). 가족동반 입국의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탈북 시기와 남한 입국시기를 달리하여 남한에서 함께 합류하여 남한 내에서 가족이 결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이기영, 2000).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들이 북한의 잔여가족을 입국시키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국내 거주하는 새터민 중 가족 단위 입국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고 추산하기도 한다. 그러나 탈북자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통일부 정착지원팀에서조차 가족이 함께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을 정확히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정주신, 2007).

〈표 2-4〉 가족단위 입국의 추이

| | | | | | | |
|------|-------|-------|-------|-------|-------|---------|
| 구분 | 1994년 | 1997년 | 1999년 | 2000년 | 2003년 | 2004년5월 |
| 가족 수 | 3가족 | 17가족 | 36가족 | 50가족 | 234가족 | 93가족 |
| 인원 | 10명 | 59명 | 91명 | 131명 | 557명 | 221명 |
| 비율 | 19.0% | 69.4% | 61.5% | 42.0% | 43.5% | 36.2%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2006. 10월 기준)

넷째, 앞서서도 살펴본 여성과 가족단위의 입국 증가에 따라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있다. 1990년대 전후의 새터민은 20~4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지만 최근에는 20~50대의 청·장년층이 약 75%를 차지하고, 유아·청소년층·노령층 등 양육·교육·부양세대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령층의 다양화로 인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육아문제, 노인문제 등 새로운 적응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응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표 2-5〉 연령별 분포

| 구 분 | 1993년 | 1994-1999 | 2000-2003 | 비 고 |
|------------|-------------|-------------|---------------|------------------|
| 청·장년층 | 533명(83.2%) | 361명(79.5%) | 2,544명(76.8%) | 20-59세 |
| 교육·부양·대상세대 | 108명(16.8%) | 93명(20.5%) | 771명(23.2%) | 20세 미만 60세 이상 |
| 전체인원 | 641명(100%) | 454명(100%) | 3,315명(100%) |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2006. 10월 기준)

다섯째, 새터민들의 탈북 목적이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식량구입과 경제적 빈곤의 해결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이주의 성격이 강하다. 2000년에서 2004년 6월까지 새터민의 탈북동기에 대한 자료가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표 2-6〉 탈북동기별 현황(2004. 6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 생활고 | 처벌우려 | 체제불만 | 동반탈북 | 중국정착 | 가정불화 | 기타 | 계 |
|--------|-------|------|------|------|------|------|----|-------|
| 2000 | 127 | 66 | 52 | 51 | 13 | 2 | 1 | 312 |
| 2001 | 293 | 73 | 33 | 171 | 7 | 2 | 4 | 583 |
| 2002 | 606 | 93 | 96 | 259 | 37 | 39 | 9 | 1,139 |
| 2003 | 774 | 80 | 123 | 194 | 46 | 53 | 11 | 1,281 |
| 2004.6 | 463 | 44 | 63 | 148 | 2 | 39 | 1 | 760 |
| 계 | 2,263 | 356 | 367 | 823 | 105 | 135 | 26 | 4,075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여섯째, 입국하는 새터민들의 계층을 보여주는 학력과 직업에서도 역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력에서의 변화는 1990년 중후반부터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 탈북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체제에서의 부적응이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탈북으로 새터민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 2-7>은 2004년 6월 기준으로 새터민의 학력을 분류한 것이다. 2005년 기준 고졸(14.4%), 대졸(21.5%)로 전체의 40%정도가 고졸 이상이다. 1994년 초 통일원 조사당시 국내거주 새터민 전체에서 전문대 졸업이상 학력자가 37%를 차지했던 반면, 10년이 지난 2004년 6월 시기에는 14.8%로 크게 낮아졌다.

<표 2-7> 북한에서의 학력

| 인민학교 졸업 이하 | 인민학교 졸업 이상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 | 전문대학 재학 이상 | 계 |
|--------------|---------------------------|-------------|----------------|
| 1131명(21.9%) | 3279명(63.3%) | 771명(14.8%) | 5,181명(100.0%) |

출처 : 통일부 내부자료 『중앙일보』 2005년 3월 9일자

이에 따라 탈북 직업에서의 분포도 변화를 보인다. 1990년대 초까지 입국하는 새터민들의 주요 직업은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북한에서의 종사했던 직업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노동자와 무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순위는 바뀌었지만 무직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재북 직업별⁴⁾ 현황(00~05. 6 입국자)

| 구분 | 관리직 | 전문직 | 예술/체육 | 노동자 | 봉사분야 | 군인 | 무직/부양 | 계 |
|----|-----|-----|-------|-------|------|----|-------|-------|
| 전체 | 147 | 136 | 81 | 2,354 | 249 | 48 | 2,761 | 5,776 |
| 남자 | 118 | 64 | 27 | 1,080 | 31 | 37 | 907 | 2,264 |
| 여자 | 29 | 72 | 54 | 1,274 | 218 | 11 | 1,854 | 3,512 |

출처: 2005 국정감사 자료집

재북 직업별 새터민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최근까지의 연도별 자료가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관리직, 전문직, 예술과 체육,

4)* 관 리 직 : 당 간부, 초급지도원 등

* 전 문 직 : 의사, 교원, 통역원 등

* 예 술 체 육 : 배우, 작가, 선동대원, 체육선수 등

* 노 동 자 : 노동자, 농장원, 돌격대원 등

* 봉 사 : 사무원, 요리사, 미용사, 체신소 교환원, 유치원 보육원 등

* 무직·부양 : 무직·부양, 장사·개인농사, 아동, 학생 등 기타 포함

봉사분야와 군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동자의 비율도 낮아지고 있으나 무직·부양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동자의 비율을 떨어뜨리고, 또한 무직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학력에서의 변화가 직업에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9〉 재북 직업별 새터민 입국현황

| 년도 | 관리직 | 전문직 | 예술·체육 | 노동자 | 봉사 | 군인 | 무직·부양 | 계 |
|-----|---------|---------|----------|-----------|---------|----------|--------------|-------|
| 01년 | 22(3.8) | 26(4.5) | 16(2.7) | 277(47.5) | 43(7.4) | 7(1.2) | 192(32.9) | 583 |
| 02년 | 32(2.7) | 45(4.0) | 18((1.6) | 503(44.2) | 72(6.3) | 11((1.0) | 458(40.2) | 1,139 |
| 03년 | 32(2.5) | 21(1.6) | 13(1.0) | 471(36.8) | 52(4.1) | 8(0.6) | 684(53.4) | 1,281 |
| 04년 | 37(2.0) | 24(1.3) | 15((0.8) | 732(38.6) | 46(2.4) | 11(0.6) | 1,029(54.3) | 1,894 |
| 05년 | 5(0.4) | 24(1.7) | 23(1.7) | 533(38.5) | 25(1.8) | 12(0.9) | 761(55.0) | 1,383 |
| 06년 | 34(1.7) | 32(1.6) | 8(0.4) | 726(36.0) | 72(3.6) | 9((0.4) | 1,138((56.3) | 2,019 |

출처 : 정주신(2007) 45쪽

3. 우리사회에서의 새터민의 현황

1) 새터민 주거형태

- 새터민의 주거형태는 임대아파트, 기타, 자가, 전·월세 등이다. 이는 정부에서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정책으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분산배치하여 살게 하기 때문이다.

〈표 2-10〉 새터민의 주거형태

(05. 6 현재)

| 구 분 | 자 가 | 전 · 월세 | 임대아파트 | 기 타 |
|--------|-----|--------|-------|-----|
| 인 원(명) | 295 | 220 | 5,656 | 423 |

출처 : 2005 국정감사 자료집

2) 새터민 월평균 소득

- 새터민들의 경제적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소득수준은 월평균 소득은 1~60만원(23.0%)로 가장 높으며, 61~80만원(20.5%), 81~100만원(19.7%)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2-11〉 새터민 월평균 소득

| 월 보수액 | 수 | 비율(%) |
|-------------|-----|-------|
| 1 ~ 60만원 | 27 | 23.0 |
| 61 ~ 80만원 | 24 | 20.5 |
| 81 ~ 100만원 | 23 | 19.7 |
| 101 ~ 120만원 | 13 | 11.0 |
| 121 ~ 140만원 | 9 | 7.7 |
| 141 ~ 160만원 | 11 | 9.4 |
| 161 ~ 180만원 | 5 | 4.3 |
| 181 ~ 200만원 | 3 | 2.6 |
| 201만원 이상 | 2 | 1.7 |
| 계 | 117 | 100.0 |

자료 : www.dongposarang.or.kr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5

3) 새터민의 취업 실태 및 형태와 직종별 분포

- 새터민들은 전체 2004년 기준, 전체 58.6%가 취업상태이며, 41.4%는 실업상태에 있다.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41.4%), 비정규직(48.3%), 기타(10.3%)이다.

〈표 2-1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

| 구 분 | 전 체 | 남 | 여 |
|-----|-----------|-----------|-----------|
| 취 업 | 65(58.6%) | 51(76.1%) | 14(31.8%) |
| 실 업 | 46(41.4%) | 16(23.9%) | 30(68.2%)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4년

〈표 2-13〉 취업형태

| 구 분 | 남 | 여 |
|------|-------|-------|
| 정규직 | 41.4% | 26.8% |
| 비정규직 | 48.3% | 68% |
| 기 타 | 10.3% | 5.2% |

출처 :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조사/통일연구원/2003년

- 새터민의 직종별 취업현황은 2005년 7월 기준 단순기술직(57.6%), 서비스 영업직(15.9%), 기술직(14.1%), 사무직(12.5%)순이며, 탈북자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무직이거나 단순노동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2-14> 직종별 취업현황

| 구분 | 대 상 자 | | | 단순기술 | 기술직 | 사무직 | 서비스 · 영업직 |
|-----------|-------|----------|----------|-------|-------|-------|--------------|
| | 계 | 남 | 여 | | | | |
| 2000년 | 105 | 75(71%) | 30(29%) | 43.9% | 13.8% | 14.6% | 27.6% |
| 2001년 | 251 | 185(74%) | 66(26%) | 42.2% | 12.9% | 13.3% | 31.6% |
| 2002년 | 296 | 219(74%) | 77(26%) | 44.1% | 19.2% | 13.2% | 22.9% |
| 2003년 | 281 | 189(67%) | 92(33%) | 31.5% | 35% | 17.4% | 15.7% |
| 2004년 | 269 | 163(60%) | 106(60%) | 39.5% | 27.6% | 16.8% | 16.1% |
| 2005년7월기준 | 321 | 187(58%) | 134(42%) | 57.6% | 14.1% | 12.5% | 15.9% |

4) 직업교육현황과 고용지원금지원에 따른 취업자 수

직업교육현황에 대한 자료가 <표 2-15>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여성 입국자수가 남성 입국자 수를 넘어서기 시작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 현황을 보여주는 2005년 7월까지의 2005년에는 직업훈련에 참가한 여성이 302명으로 남성 151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7월 현재 고용지원금을 제공받는 취업자 수에서는 여성이 전체의 42%에 머무르고 있어 직업훈련 참가자 중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조금씩 그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남성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취업률이 실제로 심각하게 저조하거나 여성들이 단란주점 등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2-15〉 직업교육훈련 인원/ 고용지원금 지원에 따른 취업자 수

| 구분 | 훈련 인원(명) | | | 취업자수(명)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2000년 | 96 | 62 | 34 | 105 | 75(71%) | 30(29%) |
| 2001년 | 217 | 108 | 109 | 251 | 185(74%) | 66(26%) |
| 2002년 | 494 | 244 | 250 | 296 | 219(74%) | 77(26%) |
| 2003년 | 745 | 351 | 394 | 281 | 189(67%) | 92(33%) |
| 2004년 | 1,080 | 481 | 599 | 269 | 163(60%) | 106(40%) |
| 2005년7월 | 453 | 151 | 302 | 321 | 187(58%) | 134(42%) |
| 계 | 3,085 | 1,397 | 1,688 | 1,523 | 1,018 | 505 |

- 직업교육 훈련 인원보다 고용지원금을 받는 새터민의 수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고용지원금은 일을 하기 시작한 첫 개시일로부터 2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때 활용하고자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생계비 지원과 택일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생계비 지원과 급여 두 가지를 모두 받고자 신청을 기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해가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모든 조사에서 일관되게 남성보다 낮은 취업률, 높은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어 새터민 집단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저조의 현상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지역사회적 적응

1. 초기 입국

- 새터민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지를 선정하는 단계까지는 정부가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초기 입국단계에서는 재외공관 등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이 이루어지고, 통일부에서 결과를 통보한다.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호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입국 후 새터민들은 7일에서 1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분이나 탈북 동기와 관련된 신문조사를 받는다. 이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으로 이동한다.

2.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 교육

- 새터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새터민들은 통일부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하나원에서는 3개월 과정으로 짜여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에 새터민들은 남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교육, 심리상담 및 직업훈련과 진로지도, 이 외에도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교육을 제공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2-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6> 하나원의 교육과정

| 교육주제 | 교육시간 | 주제내용 |
|------------------|-------|---|
| 정서안정 및 건강 증진 | 41시간 | · 심리상담, 심성훈련,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회복 |
| 우리사회 이해 증진 | 118시간 | · 민주주의, 시장경제, 남한의 문화와 법률 등 교육 · 가정·관공서·도시 탐방, 봉사활동 등 현장학습 |
|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 능력훈련 | 144시간 | · 직업정보, 직업훈련·교육제도 안내 및 진로상담 · 직종별 직업훈련(폴리텍대학), 직종설명회, 고용지원 기관 및 산업체 현장 방문 · 정보화(컴퓨터) 교육 |
| 조기 정착지원 | 57시간 | · 정착금 지급, 주거지 배정, 취직, 주민등록증발급, 의료 지원 등 정착지원제도 이해 |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2007), 148쪽

3. 정착지에서의 적응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새터민들은 전국 각처로 거주지가 배정된다. 거주지에서의 적응을 위해 새터민들에게는 개인별 보호담당관의 지원과 초기정착기반이 제공된다.

1) 보호담당관 지원

새터민들의 거주지 적응을 위해서는 신변보호 담당관, 거주지 보호 담당관, 그리고 취업보호 담당관으로부터의 도움을 제공받는다. <표 2-17>에는 담당관들이 새터민들의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업무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신변보호는 정착지에 소속된 경찰관이 담당한다.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 새터민 한명에 경찰관 한명씩 배치되어 첫 2년간 신변보호와 적응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신변보호 담당관을 통하여 남한사회를 경험하게 되며, 이들과 맺은 인간관계가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보여준다고 보고한다(전우택, 2000).

<표 2-17> 보호담당관의 지원

| 담 당 | 내 용 |
|-----------|---|
| 거주지 보호담당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보호업무의 총괄·조정 -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 관리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 - 학력확인서·교육보호대상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행정조치 - 지역사회 관련정보 및 자료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및 종교·민간단체 등과 결연 및 후원 추진 |
| 취업 보호담당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상담, 직업훈련 지원 -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정착장려금 신청서 접수, 직업훈련 지원 등 |
| 신변보호담당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주민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위해로부터 신변보호 -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등 |

출처 : 2005 국정감사 자료집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거주지에서 정착지원 활동의 강화를 위해 1999년 8월 1일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한다. 거주지 보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사실상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이탈주민 관련 업무만 집중적으로 담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취업보호담당관은 노동부 산하 각 지방 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취업지원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고 취업사업장을 연결시켜주는 도움을 제공한다. 노동부에서는 새터민 취업누리터를 설치하여 새터민 구직자가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인 “새터민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는 <표 2-18>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무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 상담신청이 있을 경우 안내와 알선을 수행하고 있다. 이탈주민 대상의 설문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했다는 응답이 많다.

<표 2-18> 새터민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 단계별 내용과 협조기관

| 단 계 | 취업지원 서비스 | 협조기관 |
|--------------------|---|----------------------------|
| 하나원 입소교육 전문직업훈련 | · 새터민 취업지원 설명회, 센터 견학프로그램 ⇒ 구직등록 | 하나원 폴리텍대학 |
| 사회전입(1단계) | · 새터민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 · 직업훈련 상담, 산업현장 견학 ⇒ 취업의욕 및 취업능력 제고 | 새터민후원회 종합사회복지관 폴리텍대학 |
| 사회전입(2단계) | · 새터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 동행면접 등 ⇒ 취업알선 | ” |
| 취업 이후 | · 센터직원을 취업후견인으로 지정 ⇒ 취업후 직장적응 지원 | 근로감독과 |

2005년부터 새로 도입된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제는 거주지에 도착하여 초기 1년 동안 1가구당 2명의 정착도우미들이 정착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정착도우미제는 새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김주삼, 2007). 2006년 1,300여명이 정착도우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새터민들의 거주지편입 초기 지역정보 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그리고 복지관

등에서 새터민의 정착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새터민의 숫자를 감안하고 이들의 연령, 성별, 직업이나 학력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의 연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다(김주삼, 2007).

2)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새터민의 정착을 위한 2005년 1월 개정된 지원내용은 <표 2-19>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새터민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정착금 전체 지급금액에는 예전과 차이가 없으나 기본금과 가산금 그리고 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2-19>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 구분 | 항목 | 내 용 | |
|-------|--------|--|---|
| | | 2005년 | 2007년 |
| 사회 복지 | 생계 급여 |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대해 지원 36만원(1인 세대)에서 132만원(6인 이상 세대) |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대해 지원 37만원(1인 세대)에서 137만원(6인 이상 세대) ※사회배출 6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급여 실시, 6개월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현금급여 지급 ※ 세대구성원 전원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특례를 인정, 현금급여액 산정시 현 세대구성원 수에 1인을 추가하여 현금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 |
| | 의료 보호 | 의료보호 1종 수급자로서의 의료혜택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의 의료혜택 |
| 정착금 | 기본금 | 1,000만원(1인 가구) - 3,200만원(7인 이상) | 1,900만원(1인 가구) - 5,100만원(7인 이상) |
| | 정착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140만원 지원 |

| 구분 | 항목 | 내 용 | |
|-----|-----------|---|--|
| | | 2005년 | 2007년 |
| 정착금 |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 노령(60세 이상 - 720만원), 장애(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 질병(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 개월×80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결손가정아동 보호(편부모아동 - 360만원) |
| 주거 | 주택 알선 | 임대아파트 특별알선(영세민보다 우선 알선) | |
| | 주거 지원금 | 1,000만원(1인 세대), 1,500만원(2인 이상세대) *지방거주 장려금 : 나 지역(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및 경기도) 지원금의 5% / 다 지역(서울 및 나 지역 이외의 지역) 지원금의 10% | - 단독 세대 : 1,300만원 - 2인~4인 세대 : 1,700만원 - 5인 이상 : 2,000만원 |

그러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정착을 위한 기본지원금을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이고, 취업장려금을 3년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서 지원하려는 변경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동아일보 2007년 2월 8일). 또한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 정착기본금 지급이 종료된 2년 이후에 해당하는 새터민들에게는 지방거주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표 2-20>에는 200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정착지원금이 집행된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새터민은 4,484명으로 전체의 68%이다. 4인 가족의 경우, 1,303,000원을 받고 있으며, 고용지원금과 선택적 수급이 되고 있다.

- 정주신(2007)은 새터민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관성 없는 지원 및 예산 편성 등 시민의 참여와 동의가 배제된 정부주도의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한계들은 새터민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응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새터민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나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처럼 적용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여 떳떳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 등으로 요약된다.

〈표 2-20〉 정착지원금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7 | |
|-------------|----|-------|-------|--------|--------|--------|--------|-----|
| 정착금 | 인원 | 223명 | 549명 | 1,029명 | 1,158명 | 1,746명 | 802명 | |
| | 금액 | 3,937 | 9,410 | 13,427 | 18,012 | 24,538 | 15,405 | |
| 주거지원 | 인원 | 223명 | 549명 | 1,029명 | 1,158명 | 1,746명 | 754명 | |
| | 금액 | 1,091 | 3,241 | 5,472 | 7,234 | 9,874 | 5,194 | |
| 보조금 | 인원 | 계 | 12명 | 11명 | 14명 | 6명 | 10명 | 6명 |
| | | 남 | 9명 | 10명 | 14명 | 4명 | 10명 | 4명 |
| | | 여 | 3명 | 1명 | | 2명 | | 2명 |
| | 금액 | 229 | 284 | 76 | 125 | 49 | 227 | |
| 중증장애 지원금 | 인원 | 계 | 7명 | 5명 | 5명 | 6명 | 9명 | 31명 |
| | | 남 | 6명 | 2명 | 3명 | 3명 | 4명 | 15명 |
| | | 여 | 1명 | 3명 | 2명 | 3명 | 5명 | 16명 |
| | 금액 | 36 | 25 | 18 | 8 | 10 | 36 | |

출처 : 2005국정감사 자료집

3) 정착지에서의 적응실태

새터민들은 하나원을 떠나기 전 전국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을 선택한다. 그러나 <표 2-2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새터민들의 39.7%가 서울, 23.5%가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 새터민의 63.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를 결정하게 되면 추가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여 새터민들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새터민의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영구임대 주택이 배정되지 못하여 지방으로 내려간 새터민들도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수도권 쏠림현상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주삼, 2007).

〈표 2-21〉 거주 지역별 현황

(05. 6월말 현재)

| 구분 | 서울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남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전체 | 2,444 | 1,450 | 155 | 132 | 499 | 242 | 107 | 434 | 662 | 35 | 6,160 |
| 남자 | 1,180 | 633 | 76 | 49 | 212 | 95 | 38 | 184 | 290 | 14 | 2,771 |
| 여자 | 1,264 | 817 | 79 | 83 | 287 | 147 | 69 | 250 | 372 | 21 | 3,389 |

*광역시는 인접 광역도에 포함

출처 : 2005 국정감사 자료집

-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김영수, 2004; 윤인진, 2004; 이민규와 우형진, 2004; 김영만, 2005). 박성숙(2006)의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생활스트레스가 탈북 후 이주기간이나 북한 거주기간에서 보다는 남한 거주기간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새터민들은 적응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 우선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새터민들은 적응하여 자립생활을 이룩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보고이다(윤인진, 2004: 통일부, 1998). 1998년 통일부의 조사결과, 214명 중 가구 당 한 달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8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2005년 북한인권 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새터민 중 29.7%는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100만원 미만의 월 소득자가 77.8%를 차지한다고 보고한다(김선화, 2006). 또한 같은 연구에서 정착금의 사용처로 브로커 비용 지출이 24.1%로 최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결과는 이들의 경제적 형편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 심리사회적 적응에서도 새터민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새터민들은 아직도 '북한 사람'으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외감(이수희, 2004; 전우택·민성길, 1996), 남한 사회에서의 높은 외래어의 사용이나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한 부적응감(이범웅, 2000; 장혜경·김영란, 2000), 낯선 사회에서의 적응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김윤경, 2005) 등으로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사회의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한국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제3국으로 이주하려는 비율도 높다고 하는데 실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13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미국을 원하는 탈북자가 19%, 중국에 머물겠다는 답변도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7년 2월 8일).

- 김영만(2005)의 연구결과는 새터민의 사회,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하겠다(<표 2-22>참조). 거주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긴밀하지 못하여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박미석·이종남, 1999). 지역사회 주민들의 새터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새터민들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표 2-22〉 새터민의 사회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유 형 | 수 | 비율(%) |
|-----------------|-----|-------|
| 편견과 차별 | 218 | 22.4 |
| 과중한 업무 | 111 | 11.4 |
| 적은 임금 | 98 | 10.1 |
| 언어 문제 | 89 | 9.1 |
| 지식과 기술부족(컴퓨터 등) | 82 | 8.5 |
| 대인관계 | 72 | 7.4 |
| 문화 차이 | 45 | 4.6 |
| 건강 문제 | 35 | 3.6 |
| 불투명한 장래 | 19 | 2.0 |
| 외로움 | 17 | 1.7 |
| 가족에 대한 그리움 | 8 | 0.8 |
| 기 타 | 179 | 18.4 |
| 계 | 973 | 100.0 |

자료 : 김영만,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새터민)들의 적응실태」.2005

- 새터민들은 정착금 지원액을 높이고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제일 원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보호담당관 제도와 정착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화, 2006). 새터민들과 보호경찰관과의 신뢰관계,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도 및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새터민들의 적응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보고(장혜경·김영란, 2000)는 새터민들의 적응을 위하여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고 하겠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전남·북·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새터민은 전체 새터민의 약 8% 48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각 지역별 나누어 보면, 광주광역시 196명, 전남 129명, 전북 122명, 제주 4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23〉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새터민 현황

| 구분 | 총인원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
| 전체 | 487명 | 196명 | 129명 | 122명 | 40명 |

출처 : 국정감사 자료집.

- 광주·전남지역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건강실태(김윤경, 2005)와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 및 우울(박성숙, 2006)을 다룬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거주지에서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새터민들의 적응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주 지역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다.

제 3 절 새터민의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

1990년대 후반의 대기근과 북한경제의 파탄은 대규모 탈북을 야기하였다. 거의 모든 탈북자가 중국에 체류 중이며, 그들이 비록 정치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송환될 경우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은 “안전한 체류”라는 입장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탈북자의 보호문제는 첫째, 중국내에서의 안전한 보호와 지위이다. 둘째, 그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그들이 한국행을 감행한다면 국내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김영만, 2003).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의 초점은 북한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입국했을 때의 쟁점이 되는 인권현황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입국하여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정부합동 조사기관에서는 인권침해는 독방생활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포감을 경험하였고, 독방 생활시 언론이나 TV 등의 시청 불가와 산책이나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적인 인권침해와 조사자들의 폭언과 욕설, 성경험에 대한 질문이나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점 등을 인권침해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위협이나 무서움을 느꼈으며, 매우 힘들었다 한다(김영만, 2003). 이들을 임시 보호와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하나원에서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교육내용, 예의 없는 대우(욕설과 폭언, 심한 경우에는 언어 맞기도 함),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 면회금지 등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였다(김영만, 2003).

하나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착할 거주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으로 배치되면 이들이 실제생활 느끼는 어려움은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의 차별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왕따를 경험하고 있으며, 신변보호관의 밤늦은 전화나

일상생활에서 계속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인권개선사항은 첫째, 남한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희망하며, 둘째, 생존권 보장 문제로서 취업난의 문제, 셋째, 국내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대안학교의 설립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새터민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교육기회의 확대, 둘째, 직장에서의 차별과 급여의 차이를 줄이는 것, 셋째, 정착지원금 제도 개선, 넷째, 남한 사람들의 시선의 개선 등을 꼽고 있다. 이들이 가장 심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는 입국초기 조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겪은 심한 말투, 문화이해 부족 시 욕을 먹는 경우, 자녀들이 학에서 따돌림 당했을 때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거주지 배정 이후의 인권 문제는 담당형사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잉'친절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며, 탈북가족간의 거주지 분리로 인하여 만남이 어렵거나 왕래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북에 남아있는 가족을 버렸다는 것에 대한 비난과 은행 계좌추적 문제, 취업의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한 생활보조금의 지속적 지급(현행제도는 5년까지 보조)을 요구하고 있다(김영만, 2003).

새터민에 대해 또 다른 인권적 관점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누리는 사회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대비한 연구가 있다. 소수자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에서 새터민들을 배제하는 형태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공간적 배제, 제도적 배제의 형태로 나누고 있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는 장기화된 실업과 불완전한 고용상태의 지속은 이들을 남한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남한사회의 빈곤계층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볼때, 남한사회에서 새터민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고 편견과 차별의 기제 속에서 사회적 낙인의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가져온다.

공간적 차원에서는, 새터민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도시영세민 지역에 거주한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보호의 기제아래 있는 것이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빈곤층 거주지에 속해 있으면서 주거지 격리를 통한 분리와 배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거지 분리를 통해 쉽게 눈에 식별되고, 사회적 낙인은 강화된다. 주거지에서 새터민들은 빈곤층으로서, 북한 탈주민으로서 이중적인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학교 교육공간에서는 학령, 나이 차이라는 결함을 가진 북한이탈 아동·청소년들의 다수가 교육공간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준동

에 이탈, 더러는 따돌림의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이탈의 집단화 경향이 나타난다(유지웅, 2005).

새터민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인권현안에 대해 새터민들이 인식하는 일반적인 현실과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서 처한 현실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정착지에 배치된 새터민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주변 모든 환경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제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들을 통해 일상생활이 지속·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생활토대를 기반으로 한 기초적인 실태 파악이 지역차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의 인권실태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 첫째, 입국 초기 조사과정에서 학대, 위협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인권침해 여부, 둘째, 시설보호과정(하나원 교육)에서의 폭언과 학대, 수치심이나 모멸감 여부 셋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차별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여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연구대상은 광주·전남·북·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인 북한이주 지원센터의 사회문화 체험교실이나 각 지역 대한 적십자사 지역지사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인 자원봉사 사업 등의 관련자 분들의 도움을 받아 표본을 추출 하였다.

임의 표본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지역에 주소지는 있지만 생계를 위해 타도에 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원을 비롯한 수많은 설문조사의 경험으로 인해 회피하거나, 사람들의 만남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셔서 우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면접과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 7. 20~9. 10이며, 설문을 배포하기 전 각 기관에 전화인터뷰나 방문을 통해 배포할 설문지 수를 정하고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설명하였다. 방문설문인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양해를 얻어 실무 간사와 직접대면기입방식으로 하였다. 각 민간기관에서 실무를 직접보시는 선생님이 중심이 되었고, 대한 적십자사의 경우, 가정봉사 방문팀이 도와주셨다.

그리하여 총 32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180부를 회수하였는데 무성의한 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170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 2 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고 Spss 12.0 for Window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실태조사위한 관계로 전체적인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빈도와 경향을 알아보았다.

□□

□□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전·남북, 제주 거주 새터민 현황

1. 사회인구학적 특징

본 연구대상자들을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종교와 주거형태로 살펴본 결과가 <표 4-1>에 요약되어 있다. 우선,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1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4%를 차지하고, 남성은 44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비율은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35.6%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40대 28.5% 그리고 20대가 17.9%의 순이었다. 10대와 60대 이상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지에 응답할 수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전남, 전북, 제주에 거주하는 비율과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4-1> 사회인구학적 요인(N=170)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성별 | 남 | 44 | 25.9 |
| | 여 | 126 | 74.1 |
| | 합계 | 170 | 100.0 |
| 연령 | 10대(0~19) | 8 | 4.8 |
| | 20대(20~29) | 30 | 17.9 |
| | 30대(30~39) | 60 | 35.6 |
| | 40대(40~49) | 49 | 28.5 |
| | 50대(50~59) | 14 | 8.4 |
| | 60대(60~69) | 7 | 4.2 |
| | 70대 이상(70~) | 1 | 0.6 |
| | 합계 | 169 | 100.0 |
| 종교 | 기독교 | 45 | 26.3 |
| | 천주교 | 5 | 3.0 |
| | 불교 | 5 | 3.0 |
| | 기타 | 4 | 2.4 |
| | 없음 | 112 | 65.3 |
| | 합계 | 171 | 100.0 |
| 주거 형태 | 자택 | 3 | 1.8 |
| | 전세 | 5 | 3.0 |
| | 월세 | 11 | 6.7 |
| | 정부임대 | 146 | 88.5 |
| | 합계 | 165 | 100.0 |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 새터민들의 절반 이상인 65.3%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종교활동 등을 하는 새터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은 기독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불교 그리고 기타는 모두 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 새터민들의 주거형태는 응답자의 많은 수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 외 월세 6.7%, 전세 3.0%, 그리고 자택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 가족구조로 살펴본 새터민 응답자의 분포는 <표 4-2>에 요약되어 있다. 새터민들은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41.0%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비율은 25.4%였다. 부모 중 한사람과 자녀가 살고 있는 편부모 가족의 비율이 11.9%를 나타냈고, 부부만 살고 있다는 응답이 10.4%였다. 그 외에는 형제와 살고 있거나(3.0%), 부모와 살고 있거나 혹은 본인과 부모, 형제가 살고 있다는 응답이 같았고(2.3%), 3세대가족인 조부모와 부부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3.7%)도 있었다.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41.0%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혼자 살고 있는 새터민들보다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본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다.

<표 4-2> 가족구조

| 구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가족 구조 | 혼자 | 55 | 41.0 |
| | 본인+형제 | 4 | 3.0 |
| | 본인+부모 | 3 | 2.3 |
| | 본인+부모+형제 | 3 | 2.3 |
| | 편부모+자녀 | 16 | 11.9 |
| | 부부 | 14 | 10.4 |
| | 부부+자녀 | 34 | 25.4 |
| | 조부모+부부+자녀 | 5 | 3.7 |
| | 합계 | 134 | 100.0 |

2. 혼인유형

-응답자들의 혼인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혼인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106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하는 것으로 <표 4-3>에 나타나 있다. 이들의 혼인유형은 매우 다양한 것을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북한에서 결혼한 경험의 유, 무로 살펴보았을 때,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48.4%, 없다는 비율이 26.8%였다. 북한에서 결혼해서 남한에서도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17.5%로 제일 높았다. 북한에서 결혼했으나 혼자 와서 다른 나라 배우자를 맞은 경우가 15.5%, 북한출신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가 11.3%였다. 북한에서 혼자 와서 다시 결혼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남한 출신인 경우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새터민 결혼유형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혼인 여부 | 예 | 106 | 64.2 |
| | 아니요 | 59 | 35.8 |
| | 합계 | 165 | 100.0 |
| 결혼 유형 | 북한에서 결혼한 후 아내(남편)와 함께 왔다 | 17 | 17.5 |
| | 북한에서 결혼했지만 혼자 와서 남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4 | 4.1 |
| | 북한에서 결혼했지만 혼자 와서 북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11 | 11.3 |
| | 북한에서 결혼했지만 혼자 와서 다른 나라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15 | 15.5 |
| |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남한에 와서 남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6 | 6.2 |
| |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남한에 와서 북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16 | 16.5 |
| |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남한에 와서 다른 나라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4 | 4.1 |
| | 기타 | 24 | 24.7 |
| | 합계 | 97 | 100.0 |

- 북한에서는 미혼이었으나 남한에 와서 결혼한 새터민들 중에는 북한출신 배우자를 맞은 비율이 16.5%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남한출신 배우자로 6.2%, 그 다음이 다른 나라 배우자가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24.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들의 가족구조와 결혼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형성한 가족이 탈북과 입국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겪는 과정이 가족구조와 결혼유형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업과 경제적 형편

1) 새터민 직업관련

- <표 4-4>에서는 응답자의 직업과 관련된 직업유무, 종사하는 직업 종류 그리고 직업만족도와 소득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의 60.5%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39.5%의 새터민들 중 생산/기능/노무직과 같은 단순기술직에 31.7% 그리고 판매/서비스 종사자와 같은 서비스 영업직에 30.1%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사무직에 17.5% 그리고 시간제취업에 12.7%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나 경영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5%미만으로 각각 3.2%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불만족스럽다(22.3%)보다는 만족스럽다(30.1%)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47.6%를 차지하였다.

- 현재 종사하는 직업에서 얻는 소득의 평균은 90만원이었다.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9.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에서의 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15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였으나 실제 그 응답자수는 5명에 불과한 것을 <표 4-4>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4-4〉 직업과 소득

| 구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직업 유무 | 있다 | 66 | 39.5 |
| | 없다 | 101 | 60.5 |
| | 합계 | 167 | 100.0 |
| 직업 | 판매/서비스종사자 | 19 | 30.1 |
| | 생산/기능/노무직 | 20 | 31.7 |
| | 사무직 | 11 | 17.5 |
| | 전문/관리/경영직 | 3 | 4.8 |
| | 자영업 | 2 | 3.2 |
| | 아르바이트 | 8 | 12.7 |
| | 합계 | 63 | 100.0 |
| 직업 만족도 | 매우 불만족스럽다 | 3 | 4.8 |
| | 약간 불만족스럽다 | 11 | 17.5 |
| | 보통이다 | 30 | 47.6 |
| | 약간 만족스럽다 | 9 | 14.2 |
| | 매우 만족스럽다 | 10 | 15.9 |
| | 합계 | 63 | 100.0 |
| 소득 (평균:90만원 최소:20만원 최대:200만원) | 50만원 미만 | 8 | 14.3 |
| | 50~99만원 | 22 | 39.3 |
| | 100~149만원 | 21 | 37.4 |
| | 150~199만원 | 3 | 5.4 |
| | 200만원 이상 | 2 | 3.6 |
| | 합계 | 56 | 100.0 |

-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조사결과가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의 한 달 평균수입은 91만원이었으며 최소 수입은 25만원 그리고 최대 수입은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이라고 하지만 그 분포는 개인의 수입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이 가족의 한 달 평균수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비슷한 비율인 34.3%를 보이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었다. 15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13.6%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9.0%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6.9%로 개인소득보다 그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음을 <표 4-5>와 <표 4-4>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표 4-5〉 새터민 가족의 경제적 형편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가족의 한 달 평균수입 (평균:91만원 최소:25만원 - 최대:250만원) | 50만원 미만 | 15 | 16.9 |
| | 50~99만원 | 31 | 35.2 |
| | 100~149만원 | 30 | 34.3 |
| | 150~199만원 | 6 | 6.8 |
| | 200~249만원 | 5 | 5.7 |
| | 250이상 | 1 | 1.1 |
| | 합계 | 88 | 100.0 |
| 가족의 한 달 수입의 내용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 65 | 33.7 |
| |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 20 | 10.4 |
| | 기타가족의 근로·사업소득 | 1 | 0.5 |
| | 정부로부터의 도움 | 99 | 51.4 |
| | 사회단체로부터의 도움 | 2 | 1.0 |
| | 친척 및 이웃의 도움 | 2 | 1.0 |
| | 강연 및 강사료 | 2 | 1.0 |
| | 주식 및 복권 | 1 | 0.5 |
| | 기타 | 1 | 0.5 |
| | 합계 | 193 | 100.0 |
| 가정의 부채 (평균:701만원, 100만원 - 3500만원) | 500만원 미만 | 8 | 38.1 |
| | 500~999만원 | 9 | 42.9 |
| | 1000~2999만원 | 3 | 14.3 |
| | 3000만원 이상 | 1 | 4.7 |
| | 합계 | 21 | 100.0 |
| 소득의 생활 만족도 | 매우 충분하다 | 3 | 1.9 |
| | 충분하다 | 18 | 11.3 |
| | 충분하지는 않으나 별 지장없다 | 54 | 34.0 |
| | 부족하다 | 62 | 39.0 |
| | 매우 부족하다 | 22 | 13.8 |
| | 합계 | 159 | 100.0 |

- 가족의 수입을 구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응답자들은 복수로 응답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99명(51.4%)이 정부로부터의 도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의 근로소득에 65명(33.7%) 그리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20명(10.4%)이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가 171명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응답자 중 58%는 정부로부터의 도움이 가족수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본인이 일을 해서 가족수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충당하는 경우는 38%, 경제적 활동을 하는 배우자나 가족이 수입을 제공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였다.

- 가정이 부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인 171명 중 12%인 21명만이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부채액은 701만원이었고, 그 범위는 100만원에서 3500만원이었다. 부채액의 분포를 살펴보자면 9명이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라고 응답하였고, 8명이 5백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39%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13.8%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8%를 차지하였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에서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1.9%였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별 지장이 없다는 응답은 54명으로 34.0%였다.

4. 남한 외 거주가족

- <표 4-6>에는 현재 남한 외에 거주하는 새터민의 가족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66명의 응답결과 중 북한이나 제3국에 가족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남한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반 이상인 56.4%가 형편이 나아지면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였고,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였다. 지금 떨어져있는 가족을 남한으로 불러오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를 차지하고 있었다.

- 현재 남한 외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연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수는 27명으로 전체의 15.8%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여부를 물었을 때,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응답한 수는 48명으로 28.1%를 차지한다.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4명으로 37.4%를 나타내고 있으나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도 34.5%를 보인다.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응답자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10만 원대가 34.8%, 20만 원대와 10만원 미만이 같은 비율인 21.0%, 다음이 40만원대로 11.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5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응답은 10%미만으로 50만원 대가 7.0%, 60만 원 이상이 2.3%였다.

- 위의 응답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7명이었으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48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나 누군가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표 4-6〉 남한 외에 거주하는 새터민의 가족현황

| 구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북한이나 3국에 가족들 유무 | 있다 | 132 | 79.5 |
| | 없다 | 34 | 20.5 |
| | 합계 | 166 | 100.0 |
| 남한 이주 계획 |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 11 | 11.7 |
| | 형편이 나아지면 계획할 것이다 | 53 | 56.4 |
| | 계획이 전혀 없다 | 20 | 21.3 |
| | 불가능하다 | 10 | 10.6 |
| | 합계 | 94 | 100.0 |
| 가족 연락가능 여부 | 가능하다 | 27 | 15.8 |
| | 무응답 | 144 | 84.2 |
| | 합계 | 171 | 100.0 |
| 경제적 지원 여부 | 예 | 48 | 28.1 |
| | 아니오 | 64 | 37.4 |
| | 무응답 | 59 | 34.5 |
| | 합계 | 171 | 100.0 |
| 한 달 평균 지원 액수 (평균: 20만원, 4만원 - 100만원) | 1~9만원 | 9 | 21.0 |
| | 10~19만원 | 15 | 34.8 |
| | 20~29만원 | 9 | 21.0 |
| | 30~39만원 | 5 | 11.6 |
| | 40~49만원 | 1 | 2.3 |
| | 50~59만원 | 3 | 7.0 |
| | 60만원 이상 | 1 | 2.3 |
| | 합계 | 43 | 100.0 |

제 2 절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1. 소속감과 정체성

1) 새터민 소속감

- 새터민들의 소속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46.2%인 78명이 남한과 북한 두 나라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 본인을 남한사람이라고 대답한 수는 65명으로 38.5%였으나, 북한 사람이라고 응답한 수도 26명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한으로 이주하였음에도 본인의 민족적 정체성은 아직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1.6%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비율이 더 높아 84.7%의 응답자가 남한 사람 혹은 적어도 남한에 소속해 있는 것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표 4-7〉 새터민의 소속감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어느 나라 사람 인가 | 남한사람 | 65 | 38.5 |
| | 북한사람 | 26 | 15.4 |
| | 둘 다(남한사람+북한사람) | 78 | 46.2 |
| | 합계 | 169 | 100.0 |

2) 새터민의 정체성

- 남한으로의 이주경험이 새터민의 정체성에 어떻게 반영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이용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가 <표 4-8>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71.8%로, 내가 사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84.5%)와 내 삶의 주인은 나다(90.0%)에 대한 응답 보다는 조금 낮았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도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1.8%로 다른 응답들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민족적 정체성

(단위 : 명, %)

| 문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
|----------------------------|---------------|--------------|--------------|--------------|------------|----------------|
|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느낀다 | 76 (44.7) | 46 (27.1) | 28 (16.5) | 19 (11.2) | 1 (0.6) | 170 (100.0) |
| 내 자신의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 118 (69.4) | 35 (20.6) | 13 (7.6) | 4 (2.4) | | 170 (100.0) |
| 나는 내가 사는 곳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낀다 | 89 (53.0) | 53 (31.5) | 20 (11.9) | 6 (3.6) | | 168 (100.0) |

- 국제경기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응원하는가를 물어서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과 북한이 경기를 하는 경우, 응답자의 45.9%는 남한을 응원한다고 하였으나 북한을 응원한다는 비율은 29.4%였다. 잘 모르거나 응원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24.7%를 보였다. 남한과 중국 혹은 남한과 다른 나라가 시합을 할 때, 새터민들은 모두 남한을 응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시합을 할 때, 90.1%(중국과의 경기에서)와 92.0%(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응답했다.

-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남한과 북한이 시합을 하게 될 경우, 남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시합을 하게 될 때, 새터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4-9〉 국제경기에서 응원하는 팀

(단위 : 명, %)

| 경기를 하는 국가 | 응원 | | | | 잘모르겠다 (안하겠다) | 합계 |
|------------|----|-----------|-------|----------|-----------------|------------|
| 남한 대 북한 | 남한 | 78(45.9) | 북한 | 50(29.4) | 42(24.7) | 170(100.0) |
| 남한 대 중국 | 남한 | 160(96.4) | 중국 | | 6(3.6) | 166(100.0) |
| 북한 대 중국 | 북한 | 146(90.1) | 중국 | 6(3.7) | 10(6.2) | 162(100.0) |
| 남한 대 다른 나라 | 남한 | 163(98.2) | 다른 나라 | | 3(1.8) | 166(100.0) |
| 북한 대 다른 나라 | 북한 | 149(92.0) | 다른 나라 | 3(1.8) | 10(6.2) | 162(100.0) |

2. 이주계획

-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진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57명은(33.7%)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로 이주하고 싶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절반 가량인 47.4%가 중국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보인 나라는 미국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10〉 이주 계획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다른 나라 이전 여부 | 예 | 57 | 33.7 |
| | 아니오 | 112 | 66.3 |
| | 합계 | 169 | 100.0 |
| 있다면 어느 나라 | 대만 | 2 | 3.5 |
| | 중국 | 27 | 47.4 |
| | 미국 | 18 | 31.6 |
| | 호주 | 5 | 8.8 |
| | 일본 | 3 | 5.3 |
| | 기타 | 2 | 3.5 |
| | 합계 | 57 | 100.0 |
| 북한으로 가실 의향 | 있다 | 11 | 19.3 |
| | 없다 | 36 | 63.2 |
| | 잘 모르겠다 | 10 | 17.5 |
| | 합계 | 57 | 100.0 |

- 북한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갈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19.3%에 해당하는 11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63.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표 4-10>에서 보여주고 있다.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한 응답자의 대답이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남한이 좋아서 거주한다는 질문에 97.6%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느 곳에 가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질문에 91.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긍정적인 대답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어서'로 5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는 73.2%, 그리고 '남한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

서는 71.5%가 긍정적인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새터민들이 남한에 거주하는 이유로는 우선 남한이 좋아서에 가장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 다음이 어느 곳에 가도 큰 차이가 없어서 남한에 거주한다고 대답하였다.

〈표 4-11〉 남한사회 거주 이유

(단위 : 명, %)

| 남한에 거주하려는 이유들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
|-------------------------|--------------|--------------|--------------|--------------|--------------|----------------|
| 남한이 좋아서 | 77 (47.0) | 53 (32.3) | 30 (18.3) | 3 (1.8) | 1 (0.6) | 164 (100.0) |
| 이미 남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 | 37 (22.8) | 59 (36.4) | 46 (28.4) | 15 (9.3) | 5 (3.1) | 162 (100.0) |
| 어느 곳에 가도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 48 (30.0) | 61 (38.1) | 38 (23.8) | 4 (2.5) | 9 (5.6) | 160 (100.0) |
|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가 힘들 테니까 | 35 (22.2) | 50 (31.6) | 35 (22.2) | 21 (13.3) | 17 (10.8) | 158 (100.0) |
| 남한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 28 (17.7) | 42 (26.6) | 43 (27.2) | 9 (5.7) | 36 (22.8) | 158 (100.0) |
|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 23 (14.4) | 46 (28.8) | 48 (30.0) | 29 (18.1) | 14 (8.8) | 160 (100.0) |
| 내가 원하는 곳으로는 갈 수 없어서 | 25 (15.6) | 28 (17.5) | 35 (21.9) | 38 (23.8) | 34 (21.3) | 160 (100.0) |

3. 거주지 결정

- 거주지에서의 적응을 살펴보기 전 남한에 들어오기 전 거주했던 나라를 있는 대로 모두 답해달라는 응답에 대해서 응답국가의 82.7%가 중국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가 166명임을 감안한다면 응답자의 95.2%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입국 전 거주 국가

| 구 분 | | 응 답 자 | |
|----------------------------------|------|-------|--------|
| | | 빈 도 | 백분율(%) |
| 남한에 들어오기 전 거주했던 나라 (N=166) | 중국 | 158 | 82.7 |
| | 러시아 | 1 | 0.6 |
| | 몽골 | 13 | 6.8 |
| | 필리핀 | 1 | 0.6 |
| | 베트남 | 2 | 1.2 |
| | 태국 | 6 | 3.2 |
| | 캄보디아 | 7 | 3.7 |
| | 라오스 | 2 | 1.2 |
| | 합계 | 191 | 100.0 |

-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체류했던 국가수를 살펴보면 1개국이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4.6%를 차지하고 있었다. 2개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새터민의 비율은 4.2%이고, 3개국을 거쳤다는 응답자는 1.2%를 차지하였다.

〈표 4-13〉 입국 전 거주 국가 수

| 구 분 | | 응 답 자 | |
|------------------------------------|-----|-------|--------|
| | | 빈 도 | 백분율(%) |
| 남한에 들어오기 전 거주했던 국가 수 (N=166) | 1개국 | 157 | 94.6 |
| | 2개국 | 7 | 4.2 |
| | 3개국 | 2 | 1.2 |
| | 합계 | 166 | 100.0 |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선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36.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31.0%는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인이 결정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에서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 그리고 진본이 있는 사람의 추천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14.1%로 나타났다.

-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수 이상인 58.6%의 응답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1%에 불과하였고,

설명을 들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가 10.7%,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다가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표 4-14>에 나타나 있다. 새터민들은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11.2%를 차지하였고(별로 불만족 9.4%, 매우 불만족 1.8%), 만족한다는 응답은 63.0%를 차지하였다(매우 만족 25.9%, 그런대로 만족 37.1%).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혹시 거주지를 이전하려고 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느끼는 자유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3.6%로 나타났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25.8%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는데 전체의 40.7%를 차지하였다.

<표 4-14> 거주지 결정 관련사항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거주지 선택 | 전적으로 나와 가족들이 결정했다 | 62 | 36.5 |
| | 친분이 있는 사람이 추천해 주었다 | 24 | 14.1 |
| | 국가에서 결정해 주었다 | 31 | 18.2 |
| |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결정했다 | 53 | 31.0 |
| | 합 계 | 170 | 100.0 |
| 지역 사회 정보 | 이미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다 | 7 | 4.1 |
| | 설명을 듣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할 수 있었다 | 18 | 10.7 |
| |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하였다 | 45 | 26.6 |
| |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지 못했다 | 99 | 58.6 |
| | 합 계 | 169 | 100.0 |
| 거주지 만족도 | 매우 만족한다 | 44 | 25.9 |
| | 그런대로 만족한다 | 63 | 37.1 |
| | 보통이다 | 44 | 25.9 |
| |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 16 | 9.4 |
| |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 3 | 1.8 |
| | 합 계 | 170 | 100.0 |
| | 거주지 이전 결정 |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 9 |
| 별로 자유롭지 못하다 | | 34 | 20.4 |
| 그저 그렇다 | | 68 | 40.7 |
| 약간 자유롭다 | | 16 | 9.6 |
| 매우 자유롭다 | | 40 | 24.0 |
| 합 계 | | 167 | 100.0 |

- 응답자들에게 혹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고, 그렇다라는 응답을 한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되는 48.2%를 차지하였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로 나타났는데, 43.9%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지역에 친한 사람이나 친척이 살고 있다는 응답이었고, 23.2%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교육을 이전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17.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9.8%를 차지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응답이었다. 이웃과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에는 단지 2명이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전체 응답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거주지 이전에 대한 희망

| 구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다른 지역 이전 여부 | 있었다 | 82 | 48.2 |
| | 없었다 | 88 | 51.8 |
| | 합계 | 170 | 100.0 |
| 옮기고 싶은 이유 |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 8 | 9.8 |
| |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게 하려고) | 14 | 17.1 |
| | 이웃과 적응하기 힘들어서 | 2 | 2.4 |
| | 좀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 36 | 43.9 |
| | 다른 지역에 나와 친한 사람이나 친척이 살고 있어서 | 19 | 23.2 |
| | 기타 | 3 | 3.7 |
| | 합계 | 82 | 100.0 |
| 옮기고 싶었지만 계속 사는 이유 |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허락받기가 어려워서 | 19 | 23.8 |
| |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4 | 5.0 |
| | 현재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 7 | 8.8 |
| | 현재 이곳에서 학업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 8 | 10.0 |
| |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 26 | 32.5 |
| |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 12 | 15.0 |
| | 기타 | 4 | 5.0 |
| 합계 | 80 | 100.0 | |

- 옮기고 싶었으나 계속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장애가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었고, 전체 응답의 32.5%가 이에 해당하였다. 허락을 받기 어렵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23.8%였다. 그 외의 이유로 응답자들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일 것에 15.0%, 현 거주지에서의 학업으로 10.0%, 경제활동 때문에 8.8%,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5.0%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4. 거주에서의 교류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표 4-16>에 제시되어 있다. 새터민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일은 정착에 필요한 업무해결이었다. 도움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하였고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57.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지에 대한 정보제공이었다. 도움을 받았다가 46.9%, 도움이 없었다가 24.7%를 차지하였다.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지역시설 이용안내로 42.8%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이나(37.4%), 가정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6.6%)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6> 거주지에서 제공받은 도움

(단위 : 명, %)

| 문항 | 큰 도움을 받았다 | 약간 도움을 받았다 | 보통이다 | 별로 도움이 없었다 | 전혀 도움이 없었다 | 합계 |
|------------------------------------|--------------|--------------|--------------|--------------|--------------|----------------|
| 거주지 정보제공 | 52 (32.1) | 24 (14.8) | 46 (28.4) | 29 (17.9) | 11 (6.8) | 162 (100.0) |
| 취업정보제공 | 29 (18.2) | 29 (18.2) | 53 (33.3) | 33 (20.8) | 15 (9.4) | 159 (100.0) |
|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연결 | 40 (24.8) | 28 (17.4) | 51 (31.7) | 25 (15.5) | 17 (10.6) | 161 (100.0) |
| 정착에 필요한 업무해결 (전입신고, 기초대상자 신청 등) | 51 (31.3) | 42 (25.8) | 43 (26.4) | 19 (11.7) | 8 (4.9) | 163 (100.0) |
|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 27 (17.1) | 15 (9.5) | 57 (36.1) | 38 (24.1) | 21 (13.3) | 158 (100.0) |
| 가정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상담 | 34 (21.1) | 33 (20.5) | 35 (21.7) | 38 (23.6) | 21 (13.0) | 161 (100.0) |
| 지역시설 이용안내 | 31 (19.5) | 15 (9.4) | 45 (28.3) | 44 (27.7) | 24 (15.1) | 159 (100.0) |

-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의 지원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본 결과가 <표 4-17>에 나타나있다.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새터민들은 이웃과의 지원망이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활발한 지원활동은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것으로 36%가 하고 있었으나 64%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아플 때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이었으나 65.8%가 하지 않는다는 34.2%가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웃집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이었으나 32.9%가 한다고 응답하였고,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1%를 차지하였다.

-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인 집을 보아주거나(14.7%) 혹은 돈을 빌리거나(19.3%)와 같은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생활용품이나 가사 도구 등을 빌리는 일을 한다는 비율도 30.0%로 그다지 적극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조사결과 살펴볼 수 있다.

<표 4-17> 지역사회에서의 지원네트워크

(단위 : 명, %)

| 문항 | 매우 자주 하고 있다 | 자주 하는 편이다 | 가끔 하는 편이다 |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 거의 하지 않는다 | 합계 |
|-----------------------------------|-------------|--------------|--------------|--------------|---------------|----------------|
|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 준다 | 5 (3.0) | 8 (4.8) | 37 (22.2) | 36 (21.6) | 81 (48.4) | 167 (100.0) |
|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을 보아 줄 것을 부탁한다 | 2 (1.2) | 4 (2.5) | 18 (11.0) | 24 (14.7) | 115 (70.6) | 163 (100.0) |
|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 한다 | 7 (4.2) | 17 (10.2) | 36 (21.6) | 34 (20.4) | 73 (43.6) | 167 (100.0) |
| 이웃집의 경조사에 참석한다 | 9 (5.5) | 12 (7.3) | 33 (20.1) | 25 (15.2) | 85 (51.9) | 164 (100.0) |
|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준다 | 3 (1.8) | 6 (3.6) | 23 (13.9) | 31 (18.8) | 102 (61.9) | 165 (100.0) |
|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내가 아플 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 8 (4.8) | 11 (6.6) | 38 (22.8) | 42 (25.1) | 68 (40.7) | 167 (100.0) |

- 새터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살펴본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4-18>에 제시되었다.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이수에게 좋은 일이 내게도 좋은 일이라는 응답에 81.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웃들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도 74.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65.8%는 노력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웃이 도와줄 것(46.6%) 혹은 대화하고 싶을 때 이야기 상대를 찾는 일(45.9%)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상황에 도와줄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18〉 공동체의식

(단위 : 명, %)

| 항 문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
|--|--------------|--------------|--------------|--------------|-------------|----------------|
| 내가 노력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65 (38.9) | 45 (26.9) | 38 (22.8) | 13 (7.8) | 6 (3.6) | 167 (100.0) |
| 이웃에게 좋은 일이 내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99 (58.2) | 39 (22.9) | 21 (12.4) | 8 (4.7) | 3 (1.8) | 170 (100.0) |
|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78 (46.2) | 48 (28.4) | 14 (8.3) | 19 (11.2) | 10 (5.9) | 169 (100.0) |
| 응급상황에 닥친다면 내가 모르는 이웃이라 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 43 (25.3) | 37 (21.8) | 67 (39.4) | 14 (8.2) | 9 (5.3) | 170 (100.0) |
|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동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38 (22.4) | 40 (23.5) | 38 (22.4) | 40 (23.5) | 14 (8.2) | 170 (100.0) |

제 3 절 인권과 사회보장 관련 사항

1. 인권과 차별 관련 사항

- 이전에는 ‘탈북주민’이라는 호칭이 사회적 낙인을 내포하고 있어서 ‘새터민’이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표 4-19> 에 제시되어있다. 만족한다(26.4%), 만족하지 않는다(23.4%)이며, 그저 그렇다(46.2%)로 조사되었다.

〈표 4-19〉 새터민 호칭에 대한 반응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새터민 호칭 | 매우 만족한다 | 11 | 6.4 |
| | 만족한다 | 41 | 24.0 |
| | 그저 그렇다 | 79 | 46.2 |
| | 만족하지 않는다 | 22 | 12.9 |
|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 18 | 10.5 |
| | 합계 | 171 | 100.0 |

-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일차적이다. 새터민들의 경우, 우리사회에 입국하여 정착지를 배정받고 거주지에서 생활을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사람들로 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19>에 제시되었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20.5%), 보통이다(20.5), 차별을 하고 있다(59.1%)로 새터민 상당수가 지역사회에서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위축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표 4-20〉 남한사회에서 새터민 차별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남한에서의 새터민 차별 | 전혀 하지 않는다 | 9 | 5.3 |
| | 별로 하지 않는다 | 26 | 15.2 |
| | 보통이다 | 35 | 20.5 |
| | 어느 정도 한다 | 86 | 50.3 |
| | 매우 많이 한다 | 15 | 8.8 |
| | 합계 | 171 | 100.0 |

- 지역사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가까운 주변사람들 중에 누가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본 물음에 대한 답은 <표

4-21>에 제시되었다. 1차적 관계인 배우자, 친척, 이웃, 친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차별한 경험은 17%이하로 나타났으며, 2차 사회적 관계인 직장상사 및 동료, 구·시청 공무원 및 경찰 관계자는 20% 이상이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 기관의 담당자, 학교교사, 의사·약사, 종교 관련자 등에 의한 차별경험은 아주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1〉 새터민이라는 사실로 인한 차별경험 (단위: 명, %)

| 항 목 |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 | 차별을 당한 경험이 | |
|-------------|---------------|--------------|--------------|---------------|
| | 알고 있다 | 알지 못한다 | 있다 | 없다 |
| 배우자 | 97 (88.2) | 13 (11.8) | 10 (10.9) | 82 (89.1) |
| 친척 | 89 (80.2) | 22 (19.8) | 13 (14.8) | 75 (85.2) |
| 이웃 | 103 (72.0) | 40 (28.0) | 20 (17.2) | 96 (82.8) |
| 친구 | 115 (89.1) | 14 (10.9) | 16 (14.7) | 93 (85.3) |
| 직장상사 | 97 (85.8) | 16 (14.2) | 27 (26.2) | 76 (73.8) |
| 직장동료 | 96 (85.1) | 13 (11.9) | 21 (21.0) | 79 (79.0) |
| 구청·동사무소공무원 | 151 (98.7) | 2 (1.3) | 32 (23.5) | 104 (76.5) |
| 복지관 담당자 | 149 (98.0) | 3 (2.0) | 16 (12.2) | 115 (87.8) |
| 의사 혹은 약사 | 107 (81.1) | 25 (18.9) | 14 (12.2) | 101 (87.8) |
| 경찰 | 150 (96.8) | 5 (3.2) | 24 (18.3) | 107 (81.7) |
| 학교교사 | 62 (62.0) | 38 (38.0) | 9 (11.3) | 71 (88.8) |
| 아파트 관리인 | 94 (69.1) | 42 (30.9) | 15 (13.8) | 94 (86.2) |
|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 | 116 (85.3) | 20 (14.7) | 7 (6.2) | 106 (93.8) |

-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새터민이라는 본인의 처지를 어떻게 알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표 4-22>에 제시되어있다.

뚝뚝하게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만난다(52.9%),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때 북에서 왔다고 말한다(25.3%)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구분하면 당당하게 밝힌다(52.7%), 할 수 없이 알린다(47.1%)로 조사되었다.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당당하게 알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이 묵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22〉 신분에 대한 알림정도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새터민의 신분을 알림 | 떳떳하게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만난다 | 90 | 52.9 |
| | 새터민이라고 하면 웬지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밝히지 않는다 | 25 | 14.7 |
| | 북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연변에서 왔다고 말한다 | 8 | 4.7 |
| |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때 북에서 왔다고 말한다 | 43 | 25.3 |
| | 기타 | 4 | 2.4 |
| | 합계 | 170 | 100.0 |

- 차별이란 특정한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에서 새터민 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차별을 받는 여부와 어느 부분에서 차별이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항목별로 알아보고<표 4-23>에 제시되어 있다. 직업이나 직장 구할 때의 차별(52.1%), 같은 일을 해도 남한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는 임금차별(33.6%), 승진차별(30.2%)순으로 조사되었다. 새터민들은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차별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23〉 차별에 대한 경험

(단위: 명, %)

| 문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보통 이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
|----------------------------------|--------------|--------------|--------------|-----------------|-----------------|----------------|
| 직업이나 직장 구하는데 차별을 당한다 | 22 (13.3) | 64 (38.8) | 41 (24.8) | 21 (12.7) | 17 (10.3) | 165 (100.0) |
| 같은 일을 해도 남한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 | 16 (9.8) | 39 (23.8) | 60 (36.6) | 24 (14.6) | 25 (15.2) | 164 (100.0) |
| 북한 출신이라서 승진에 차별을 받는다 | 20 (12.3) | 29 (17.9) | 89 (54.9) | 11 (6.8) | 13 (8.0) | 162 (100.0) |
| 북한 출신이라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 4 (2.4) | 25 (15.2) | 75 (45.5) | 33 (20.0) | 28 (17.0) | 165 (100.0) |
| 직장, 교회 등 각종 공동체에서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 | 2 (1.2) | 22 (13.5) | 64 (39.3) | 31 (19.0) | 44 (27.0) | 163 (100.0) |
| 학교나 단체에서 차별을 받는다 | 1 (0.6) | 19 (11.9) | 71 (44.4) | 28 (17.5) | 41 (25.6) | 160 (100.0) |

- 차별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23>에 제시되어 있다. 그냥 묵묵히 참음(35.0%), 직접 항의(23.3%),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13.5%), 교회나 절, 성당에 가서 기도(12.3%)순이며, 이를 적극적 호소(직접항의, 인권단체에 신고)와 수동적 호소로 구분하면 적극적 호소(27%), 수동적 호소(64.1%)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비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새터민들 중에 참거나 숨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4-24>에 제시되어 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55.2%),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기 때문에(34.5%)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면, 차별에 대해 신고하거나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조사 받고 불려 다닌다는 생각과 호소에 대한 결과가 무의미하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4> 차별경험에 대한 호소 방법과 대처

| 구 분 | | 응답자 | |
|------------------|---------------------|-----|--------|
| | | 빈도 | 백분율(%) |
| 차별에 대한 반응 | 직접 항의 | 38 | 23.3 |
| | 인권 단체에 신고 | 6 | 3.7 |
| | 남한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 3 | 1.8 |
| | 교회나 절, 성당에 가서 기도 | 20 | 12.3 |
| |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 | 22 | 13.5 |
| | 그냥 묵묵히 참음 | 57 | 35.0 |
| | 차별당한 사실을 숨긴다 | 1 | 0.6 |
| | 기타 | 16 | 9.8 |
| | 합계 | 163 | 100.0 |
| 참거나 숨기는 이유 |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몰라서 | 3 | 5.2 |
| |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 20 | 34.5 |
| | 보복이 두려워서 | 1 | 1.7 |
| |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 32 | 55.2 |
| | 기타 | 2 | 3.4 |
| | 합계 | 58 | 100.0 |

- 새터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각 기관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결과표는<4-25>에 제시되어 있다. 차별을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할 당사자는 새터민 본인들(82.5%), 정부기관(77.8), 남한사람들의 이해(70.8%), 지방자치단체(64.6%), 시민사회단체(63.4)로 조사되었다. 이는 새터민들의 차별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터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지원과 많은 사람들이 새터민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보내는 것이며 이들의 삶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25〉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

(단위: 명, %)

| 문항 | 매우 필요 하다 | 약간 필요 하다 | 보통 이다 | 별로 하지않는 편이다 |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 | 합계 |
|-----------|----------------|----------------|--------------|-------------------|-------------------|----------------|
| 남한정부 | 130 (77.8) | 23 (13.8) | 11 (6.6) | 1 (0.6) | 2 (1.2) | 167 (100.0) |
| 지방자치단체 | 106 (64.6) | 40 (24.4) | 14 (8.5) | 2 (1.2) | 2 (1.2) | 164 (100.0) |
| 시민사회단체 | 104 (63.4) | 37 (22.6) | 17 (10.4) | 4 (2.4) | 2 (1.2) | 164 (100.0) |
| 남한사람들의 이해 | 119 (70.8) | 30 (17.9) | 16 (9.5) | 1 (0.6) | 2 (1.2) | 168 (100.0) |
| 새터민 본인들 | 137 (82.5) | 15 (9.0) | 10 (6.0) | 3 (1.8) | 1 (0.6) | 166 (100.0) |

- 새터민 스스로가 생각하는 차별의식 의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사항들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 결과가 <표 4-26>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새터민도 일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 결정하고 정당한 보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보장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85.9%), 새터민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84.7%), 생김새나 말투가 다르다고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84.7%),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82.4%), 새터민도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81.2%), 성별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81.0%).

- 새터민에게도 국내,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79.4%), 새터민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76.9%), 새터민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강제적인 의학적 검사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71.6%), 소수집단이나 이주민, 선주민 등 주류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53.3%) 순이다. 이는 생존을 위한 노동권 보장, 건강보호를 위한 평등한 의료권 보장, 외모로 인한 차별 금지, 교육 및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보호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4-26〉 차별의식 정도

(단위: 명, %)

| 문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
|---|---------------|--------------|--------------|------------|------------|----------------|
|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 140 (82.4) | 19 (11.2) | 7 (4.1) | 3 (1.8) | 1 (0.6) | 170 (100.0) |
| 새터민도 일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 결정하고 정당한 보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보장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46 (85.9) | 17 (10.0) | 6 (3.5) | 1 (0.6) | | 170 (100.0) |
| 생김새나 말투가 다르다고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 144 (84.7) | 16 (9.4) | 6 (3.5) | 4 (2.4) | | 170 (100.0) |
| 성별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 136 (81.0) | 17 (10.1) | 10 (6.0) | 3 (1.8) | 2 (1.2) | 168 (100.0) |
| 새터민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 | 130 (76.9) | 23 (13.6) | 13 (7.7) | 3 (1.8) | | 169 (100.0) |
| 새터민에게도 국내,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 | 135 (79.4) | 23 (13.5) | 10 (5.9) | 2 (1.2) | | 170 (100.0) |
| 새터민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강제적인 의학적 검사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 121 (71.6) | 25 (14.8) | 16 (9.5) | 6 (3.6) | 1 (0.6) | 169 (100.0) |
| 새터민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 144 (84.7) | 20 (11.8) | 4 (2.4) | 2 (1.2) | | 170 (100.0) |
| 새터민도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138 (81.2) | 24 (14.1) | 5 (2.9) | 3 (1.8) | | 170 (100.0) |
| 소수집단이나 이주민, 선주민 등 주류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 | 90 (53.3) | 32 (18.9) | 38 (22.5) | 7 (4.1) | 2 (1.2) | 169 (100.0) |

2. 사회보장에 대한 사항

-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 입국하여 지역사회 정착하고,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질적 열악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권과 관련되며 제도적인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새터민들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제도에 대

해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27>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7> 각종제도의 이용과 활용 정도

(단위: 명, %)

| 문항 |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 합계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
|--------------|---------------|---------------|----------------|---------------|--------------|--------------|-------------|--------------|----------------|
| | 예 | 아니오 | | | | | | | |
| 정착금 | 162 (97.0) | 5 (3.0) | 167 (100.0) | 123 (77.8) | 23 (14.6) | 11 (7.0) | 1 (0.6) | | 158 (100.0) |
| 정착 가산금 | 74 (48.7) | 78 (51.3) | 152 (100.0) | 46 (47.4) | 14 (14.4) | 21 (21.6) | 6 (6.2) | 10 (10.3) | 97 (100.0) |
| 주택지원 | 147 (90.2) | 16 (9.7) | 163 (100.0) | 105 (72.9) | 17 (11.8) | 17 (11.8) | 2 (1.4) | 3 (2.1) | 144 (100.0) |
| 주택교환 | 23 (16.0) | 121 (84.0) | 144 (100.0) | 12 (21.4) | 6 (10.7) | 15 (26.8) | 7 (12.5) | 16 (28.6) | 56 (100.0) |
| 취업 장려금 | 22 (15.0) | 125 (85.0) | 147 (100.0) | 17 (34.7) | 2 (4.1) | 11 (22.4) | 7 (14.3) | 12 (24.5) | 49 (100.0) |
| 취업보호제 도 | 23 (15.8) | 123 (84.2) | 146 (100.0) | 14 (28.6) | 5 (10.0) | 13 (26.0) | 8 (16.0) | 10 (20.0) | 50 (100.0) |
| 직업훈련 (무상) | 55 (37.4) | 92 (62.6) | 147 (100.0) | 38 (50.0) | 11 (14.5) | 12 (15.8) | 4 (5.3) | 11 (14.5) | 76 (100.0) |
| 학비면제 | 42 (28.8) | 104 (71.2) | 146 (100.0) | 33 (52.4) | 8 (12.7) | 9 (14.3) | 4 (6.3) | 9 (14.3) | 63 (100.0) |
| 대학입학 특례 | 15 (10.9) | 123 (89.1) | 138 (100.0) | 16 (38.1) | 2 (4.8) | 9 (21.4) | 5 (11.9) | 10 (23.8) | 42 (100.0) |
| 생계급여 | 153 (94.4) | 9 (5.6) | 162 (100.0) | 119 (78.3) | 13 (8.6) | 15 (9.9) | 2 (1.3) | 3 (2.0) | 152 (100.0) |
| 의료보호 | 151 (94.4) | 9 (5.6) | 160 (100.0) | 116 (78.4) | 15 (10.1) | 14 (9.5) | 1 (0.7) | 2 (1.4) | 148 (100.0) |
| 국민연금 | 27 (19.7) | 110 (80.3) | 137 (100.0) | 18 (34.6) | 3 (5.8) | 12 (23.1) | 5 (9.6) | 14 (26.9) | 52 (100.0) |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 순으로는 정착금, 생계급여, 의료보호, 주택지원, 정착가산금 순이며, 주택교환, 취업장려금, 취업보호제도, 직업훈련(무상), 학비면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는 그 이용이 아주 미비하였다.

- 특히 교육의 기회가 개선되어야만 인권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지만 대

학업학특례의 이용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각종 제도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의 원인도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각종사회제도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와 신청시의 절차나 사후 수습방안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용에 불편함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결 론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과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지역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는 첫째, 우리사회 구성원들과 새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공동체 프로그램의 강화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터민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새터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전담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한사회 사람들이 새터민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에서 넘어온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터민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 새터민들과 남한사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터민 스스로가 가지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 덕목이다. 성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남한 사람들의 선입견은 불식되고 이러한 노력이 강한 강력한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의 노력으로는

첫째, 생존할 수 있는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이다. 새터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직장을 구할 때 차별을 당하고, 임금차별과, 승진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삶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터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발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체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 탈출- 중국- 한국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신과 은둔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경험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훈련되고 현실적응에 단련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새터민들에 대한 공간적 배제에서 오는 인권침해의 개선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새터민의 주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영세민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공간적 소외 지역으로 이곳의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나름의 공간문화가 형성된 지역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새터민 86%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새터민에 대한 공간적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현행제도의 주택지원 정책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의 주택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적 차별과 인권침해이다. 우리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정책으로 대학특례입학이나 각 부분에 대한 할당제가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새터민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만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화(2006)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를 위한 제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06. 10.26 자료.
- 김영만(2005) 통일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새터민)들의 적응실태 :무엇이 그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광주: 한국학술정보.
- 김영수(2003) 정착의 지름길.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김영수(2004)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재사회화 문제, 사회과학연구, 12(1), 118-148.
- 김윤경(2005) 광주.전남지역 새터민의 건강실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삼(2007) 새터민 가족의 여가생활과 문화. 새터민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지원 방안. 2007년도 한국가족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 31-70.
- 박미석·이종남(1999)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17, pp.3-73.
- 박성숙(2006) 광주.전남지역 새터민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영(2002)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과 이의 극복방안. 통일교육원 편. 통일연구논집-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설계- pp.469-483.
- 유지웅(2005)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 관점에서- 한국학 중앙 연구소.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인진(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인진(2000)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3권 2호. pp.123-184
- 윤인진(2000)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 자영업 기반 형성을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통권 제104호. pp.143-288.
- 윤인진(2004)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착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국회 발표자료.
- 이기영(2000) 탈북자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이수희(2004) 북한이주민의 남한사회정착에 관한 연구-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규·우형진(2004)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사회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문화계발효과와 문화동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6), 248-274.
- 이범웅(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실태 연구. 통일문제와 국제연계. 11.

- 임현진·정영철(1999) 사회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통일연구, 3, 329-371.
-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우택·민성길(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6-60.
-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2: 109-167, 연세대 민족통일연구원.
- 전우택(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춘계
심포지엄. pp.67-91
- 전우택(2006)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
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오름.
- 정병호(2004) 『환상과 부적응 -탈북이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한울아카데미.
- 정주신(2007) 새터민 가족의 적응과 문제. 새터민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지원방안.
2007년도 한국가족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81-103.
- 통일부(1998)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 미간행 보고서.
- 통일부(2006) 북한이탈주민 관련통계.

□□

□□



설문지

▶ 남성용

□□□□□-□□□□

새터민의 생활실태 및 인권상황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는 새터민 여러분의 생활실태 및 인권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새터민 여러분의 생활 및 인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조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에 부쳐질 것입니다.

새터민 여러분의 생활 및 인권 개선을 위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062-710-9710~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소장

| | | | |
|------|-----------------|--------|--|
| 조사일시 | 2007년 월 일 | 조사자 성명 | |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다음은 귀하의 거주지 선택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귀하께서 남한에서 거주하신 지역을 모두 적어주세요.

| 거주지(가능한 구체적으로) | 기간(년, 월~ 년, 월) | 이전 이유는? |
|----------------|-----------------|---------|
| | | |
| | | |
| | | |

2. 귀하의 거주지의 선택은?

- ① 전적으로 나와 가족들이 결정했다. ② 친분이 있는 사람이 추천해 주었다.
 ③ 국가에서 결정해 주었다. ④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결정했다.

3. 현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정보에 대해서는?

- ① 이미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다.
 ② 설명을 듣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할 수 있었다.
 ③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하였다.
 ④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지 못했다.

4.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그런대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⑤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5. 만약 귀하께서 거주지를 이전하려고 한다면, 그 결정은?

- ①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② 별로 자유롭지 못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자유롭다 ⑤ 매우 자유롭다.

6. 귀하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6-1번으로 가주세요. ② 없었다 ☞ 7번으로 가주세요.

6-1. 옮기시고 싶은 이유는?

- 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 ②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게 하려고)
- ③ 이웃과 적응하기 힘들어서
- ④ 좀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 ⑤ 다른 지역에 나와 친한 사람이나 친척이 살고 있어서
- ⑥ 기타 _____

6-2. 옮기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계속 사시는 이유는?

- ①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허락받기가 어려워서
- ②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③ 현재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 ④ 현재 이곳에서 학업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 ⑤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 ⑥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 ⑦ 기타 _____

7. 귀하는 다른 나라로 가실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7-1번으로 가주세요. ② 아니오 ☞ 7-3번으로 가주세요.

7-1. 그렇다면 어느 나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① 대만 ② 중국 ③ 미국 ④ 호주 ⑤ 캐나다 ⑥ 일본
- ⑦ 필리핀 ⑧ 기타(_____)

7-2. 만약 북한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7-3. 남한사회 거주이유들입니다. 본인의 의견과 가장 비슷한 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남한에 거주하려는 이유들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남한이 좋아서 | | | | | |
| 2. 이미 남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 | | | | | |
| 3. 어느 곳에 가도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 | | | | |

| 남한에 거주하려는 이유들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4.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가 힘들 테니까 | | | | | |
| 5. 남한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 | | | | |
| 6.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 | | | | |
| 7. 내가 원하는 곳으로는 갈 수 없어서 | | | | | |

8. 귀하는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사람 ② 북한사람 ③ 둘 다(남한사람+북한사람) ④기타(_____)

9. 국제 운동 경기에서 아래 국가들이 겨룰 때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경기를 하는 국가 | 응원하실 국가에 √표시를 해 주세요. | | 잘 모르겠다 (안하겠다) |
|-----------|----------------------|------------|---------------|
| 남한 대 북한 | 남한() | 북한() | |
| 남한 대 중국 | 남한() | 중국() | |
| 북한 대 중국 | 북한() | 중국() | |
| 남한 대 다른나라 | 남한() | 다른나라() | |
| 북한 대 다른나라 | 북한() | 다른나라() | |

10.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 문 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내가 노력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2. 이웃에게 좋은 일이 내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3.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 | | |
| 4. 응급상황에 닥친다면 내가 모르는 이웃이라 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 | | | | |
| 5.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동네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

11.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 문항 | 매우자주 하고 있다 | 자주하는 편이다 | 가끔 하는 편이다 | 별로 하지않는 편이다 | 거의 하지 않는다 |
|---------------------------------------|------------------|-------------|-----------------|-------------------|-----------------|
| 1.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 준다. | | | | | |
| 2.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을 보아 줄 것을 부탁한다. | | | | | |
| 3.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 한다. | | | | | |
| 4. 이웃집의 경조사에 참석한다. | | | | | |
| 5.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 준다. | | | | | |
| 6.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내가 아플 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 | | | | |

다음은 차별경험 혹은 제한된 일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2. 일반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새터민들에 대해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별로 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한다 ⑤ 매우 많이 한다.

13. 다음은 귀하가 알고 계신 주변사람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귀하가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항 목 |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 | 차별을 당한 경험이 | |
|-------------|------------|--------|------------|----|
| | 알고 있다 | 알지 못한다 | 있다 | 없다 |
| 배우자 | | | | |
| 친척 | | | | |
| 이웃 | | | | |
| 친구 | | | | |
| 직장상사 | | | | |
| 직장동료 | | | | |
| 구청·동사무소 공무원 | | | | |

| 항 목 |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 | 차별을 당한 경험이 | |
|-------------|------------|--------|------------|----|
| | 알고 있다 | 알지 못한다 | 있다 | 없다 |
| 복지관 담당자 | | | | |
| 의사 혹은 약사 | | | | |
| 경찰 | | | | |
| 학교교사 | | | | |
| 아파트관리인 | | | | |
|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 | | | | |
| 기타() | | | | |

14.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 새터민이라는 본인의 처지를 것을 어떻게 알려
십니까?

- ① 떳떳하게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만난다.
- ② 새터민이라고 하면 왠지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밝히지 않는다.
- ③ 북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연변에서 왔다고 말한다.
- ④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때 북에서 왔다고
말한다.
- ⑤ 기타(_____)

15. 새터민이라서 다음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
를 해 주세요.

| 문 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 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직업이나 직장 구하는데 차별을 당한다. | | | | | |
| 2. 같은 일을 해도 남한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 | | | | | |
| 3. 북한 출신이라서 승진에 차별을 받는다. | | | | | |
| 4. 북한 출신이라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을 당한다. | | | | | |
| 5. 직장, 교회 등 각종 공동체에서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 | | | | | |
| 6. 학교나 단체에서 차별을 받는다. | | | | | |

| 문 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 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4. 성별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 | | | | |
| 5. 새터민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 | | | | | |
| 6. 새터민에게도 국내,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 | | | | | |
| 7. 새터민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강제적인 의학적 검사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 | | | | |
| 8. 새터민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 | | | | |
| 9. 새터민도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 | | | |
| 10. 소수집단이나 이주민, 선주민 등 주류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 | | | | | |

19. 다음 문항을 읽고 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하세요.

| 문 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 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느낀다. | | | | | |
| 2. 내 자신의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 | | | | |
| 3. 나는 내가 사는 곳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낀다. | | | | | |

20. 새터민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21. 현 거주지에서 다음 일들에 대해서 귀하께서 얼마나 도움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가장 적절한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문 항 | 큰 도움을 받았다 | 약간 도움을 받았다 | 보통 이다 | 별로 도움이 없었다 | 전혀 도움이 없었다 |
|---------------------------------------|-----------------|------------------|----------|------------------|------------------|
| 1. 거주지 정보제공 | | | | | |
| 2. 취업정보제공 | | | | | |
| 3.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연결 | | | | | |
| 4. 정착에 필요한 업무해결 (전입신고, 기초대상자 신청 등) | | | | | |
| 5.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 | | | | |
| 6. 가정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상담 | | | | | |
| 7. 지역시설 이용안내 | | | | | |

22. 귀하는 다음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용한 적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문 항 |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 도움이 된 정도 | | | | |
|-------------|------------------|-----|-----------|-----------|----------|-----------------|-----------------|
| | 예 | 아니오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보통 이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1. 정착금 | | | | | | | |
| 2. 정착가산금 | | | | | | | |
| 3. 주택지원 | | | | | | | |
| 4. 주택교환 | | | | | | | |
| 5. 취업장려금 | | | | | | | |
| 6. 취업보호제도 | | | | | | | |
| 7. 직업훈련(무상) | | | | | | | |
| 8. 학비면제 | | | | | | | |
| 9. 대학입학특례 | | | | | | | |
| 10. 생계급여 | | | | | | | |
| 11. 의료보호 | | | | | | | |
| 12. 국민연금 | | | | | | | |

다음은 귀하와 귀하가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 이 질문들은 단순히 통계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3. 귀하는 언제 탈북하셨습니까?
 - ① 북한을 떠난 시기는? _____년 _____월
 - ② 남한에 들어온 시기는? _____년 _____월

4. 귀하는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동안 어디에 사셨습니까?
나라명 또는 지역이름 : _____

5. 귀하는 혼인을 하셨나요?
 - ① 예 ⇨ 5-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요 ⇨ 6번으로 가세요.
 - 5-1. 혼인을 하셨다면 언제 하셨나요? _____년 _____월
 - 5-2. 귀하의 부부 결혼유형은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북한에서 결혼한 후 아내(남편)와 함께 왔다.
 - ② 북한에서 결혼했지만 혼자 와서 남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③ 북한에서 결혼했지만 혼자 와서 북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④ 북한에서 결혼했지만 혼자 와서 다른 나라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⑤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남한에 와서 남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⑥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남한에 와서 북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⑦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남한에 와서 다른 나라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⑧ 기타 _____

6. 귀하는 현재 일(직업)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6-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요 ⇨ 7번으로 가세요.

6-1.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고 그 일을 함으로써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게 되는지도 적어 주세요.

직업 : _____ 월 소득 : _____ 원

6-2. 귀하는 현재의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약간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⑥ 직업이 없다

7. 귀하 가족의 한 달 수입은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원

8. 귀하 가족의 한 달 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해 주세요.

- 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②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③ 기타가족의 근로·사업소득 ④ 재산소득(이자, 임대료 등)
 ⑤ 정부로부터의 도움 ⑥ 사회단체로부터의 도움
 ⑦ 친척 및 이웃의 도움 ⑧ 강연 및 강사료
 ⑨ 주식 및 복권 ⑩ 기타 : (_____)

9. 귀하 가정의 전체 소득은 생활하기에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충분하지는 않으나 별 지장없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10. 귀하 가정의 빚(부채)이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_____ 원

1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자택 전세 월세 사글세
 정부임대아파트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더부살이
 (교회 등 사회단체나 NGO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쉼터
 학교 기숙사 직장기숙사 기타(_____)

12. 북한이나 제3국에 가족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2-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 13번으로 가세요.

12-1. 북한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답해주세요.

| 본인과의 관계 | 출생년도(나이) | 성별 | 현거주지 | | 남한이주 계획(보기참고) | 연락 가능한 경우 표시 |
|------------|----------|----|------|-----|------------------|-----------------|
| | | | 북한 | 제3국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보기> 남한이주계획
 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② 형편이 나아지면 계획할 것이다.
 ③ 계획이 전혀 없다. ④ 불가능하다

12-2. 귀하는 북한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12-3으로 가주세요) ② 아니오

12-3. 그 액수는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_____ 원

*** 결혼한 남성분들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귀하가 배우자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 주세요.

| 문 항 | 매우자주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가끔 있었다 | 전혀 없었다 | 잘 모르 겠다 |
|--|-------------|-----------|-----------|-----------|------------|
| 1. 나는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한 적이 있다. | | | | | |
| 2. 나는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배우자에게 던졌다. | | | | | |
| 3. 나는 배우자의 팔을 비틀거나,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발로 찼다. | | | | | |
| 4. 배우자가 부부싸움에 다쳐서 병원에 갔거나 오랫동안 아팠다. | | | | | |
| 5. 배우자에게 고함이나 소리를 질렀다. | | | | | |
| 6. 성관계를 갖기 위해 배우자에게 무력(때리기, 붙잡기, 흉기사용하기 등)을 사용하였다. | | | | | |
| 7.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그러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 | | | | |

14. 현재 귀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 적어 주십시오. 아래 보기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번호를 써 주세요.

| 본인과의 관계 | 출생년도 (나이) | 태어난 곳 | | 성별 | 종교 | 학력 | | 직업 | | 건강 상태 (보기참조) | 동반탈북 (유·무) |
|------------|--------------|-------|----|----|----|----|----|----|----|--------------------|---------------|
| | | 남한 | 북한 | | | 남한 | 북한 | 남한 | 북한 | | |
| 응답자 본인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
| <건강상태 보기> | |
| ① 매우 건강하다 | ② 오랫동안 질병을 갖고 있다 |
| ③ 장애를 갖고 있다 | ④ 질병과 장애를 둘 다 가지고 있다. |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심층면접조사에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께서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신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층면접 희망지원자 이름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

▶ 여성용

□□□□-□□□□

새터민의 생활실태 및 인권상황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는 새터민 여러분의 생활실태 및 인권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새터민 여러분의 생활 및 인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조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에 부쳐질 것입니다.

새터민 여러분의 생활 및 인권 개선을 위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062-710-9710~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소장

| | | | |
|------|-----------------|--------|--|
| 조사일시 | 2007년 월 일 | 조사자 성명 | |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다음은 귀하의 거주지 선택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귀하께서 남한에서 거주하신 지역을 모두 적어주세요.

| 거주지(가능한 구체적으로) | 기간(년, 월~ 년, 월) | 이전 이유는? |
|----------------|-----------------|---------|
| | | |
| | | |
| | | |

2. 귀하의 거주지의 선택은?

- ① 전적으로 나와 가족들이 결정했다. ② 친분이 있는 사람이 추천해 주었다.
 ③ 국가에서 결정해 주었다. ④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결정했다.

3. 현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는?

- ① 이미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다.
 ② 설명을 듣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할 수 있었다.
 ③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하였다.
 ④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지 못했다.

4.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그런대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⑤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5. 만약 귀하께서 거주지를 이전하려고 한다면, 그 결정은?

- ①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② 별로 자유롭지 못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자유롭다 ⑤ 매우 자유롭다.

6. 귀하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6-1번으로 가주세요. ② 없었다 ☞ 7번으로 가주세요.

6-1. 옮기시고 싶은 이유는?

- 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 ②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게 하려고)
- ③ 이웃과 적응하기 힘들어서
- ④ 좀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 ⑤ 다른 지역에 나와 친한 사람이나 친척이 살고 있어서
- ⑥ 기타

6-2. 옮기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계속 사시는 이유는?

- ①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허락받기가 어려워서
- ②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③ 현재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 ④ 현재 이곳에서 학업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 ⑤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 ⑥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 ⑦ 기타

7. 귀하는 다른 나라로 가실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7-1번으로 가주세요. ② 아니오 ☞ 7-3번으로 가주세요.

7-1. 그렇다면 어느 나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① 대만 ② 중국 ③ 미국 ④ 호주 ⑤ 캐나다 ⑥ 일본
- ⑦ 필리핀 ⑧ 기타()

7-2. 만약 북한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7-3. 남한사회 거주이유들입니다. 본인의 의견과 가장 비슷한 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남한에 거주하려는 이유들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남한이 좋아서 | | | | | |
| 2. 이미 남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서 | | | | | |
| 3. 어느 곳에 가도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 | | | | |

| 남한에 거주하려는 이유들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4.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가 힘들 테니까 | | | | | |
| 5. 남한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 | | | | |
| 6.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 | | | | |
| 7. 내가 원하는 곳으로는 갈 수 없어서 | | | | | |

8. 귀하는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사람 ② 북한사람 ③ 둘 다(남한사람+북한사람) ④기타(_____)

9. 국제 운동 경기에서 아래 국가들이 겨룰 때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경기를 하는 국가 | 응원하실 국가에 √표시를 해 주세요. | | 잘 모르겠다 (안하겠다) |
|-----------|----------------------|-------------|------------------|
| 남한 대 북한 | 남한() | 북한() | |
| 남한 대 중국 | 남한() | 중국() | |
| 북한 대 중국 | 북한() | 중국() | |
| 남한 대 다른나라 | 남한() | 다른나라() | |
| 북한 대 다른나라 | 북한() | 다른나라() | |

10.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 문 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내가 노력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2. 이웃에게 좋은 일이 내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3.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 | | |
| 4. 응급상황에 닥친다면 내가 모르는 이웃이라 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 | | | | |
| 5.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동네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

11.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 문항 | 매우 자주 하고 있다 | 자주 하는 편이다 | 가끔 하는 편이다 |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 거의 하지 않는다 |
|---------------------------------------|-------------|-----------|-----------|--------------|-----------|
| 1.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 | | | | |
| 2.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을 보아 줄 것을 부탁한다. | | | | | |
| 3.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한다. | | | | | |
| 4. 이웃집의 경조사에 참석한다. | | | | | |
| 5.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준다. | | | | | |
| 6.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내가 아플 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 | | | | |

다음은 차별경험 혹은 제한된 일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2. 일반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새터민들에 대해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별로 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한다 ⑤ 매우 많이 한다.

13. 다음은 귀하가 알고 계신 주변사람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귀하가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항 목 |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 | 차별을 당한 경험이 | |
|------------|------------|--------|------------|----|
| | 알고 있다 | 알지 못한다 | 있다 | 없다 |
| 배우자 | | | | |
| 친척 | | | | |
| 이웃 | | | | |
| 친구 | | | | |
| 직장상사 | | | | |
| 직장동료 | | | | |
| 구청·동사무소공무원 | | | | |

| 항 목 |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 | 차별을 당한 경험이 | |
|-------------|------------|--------|------------|----|
| | 알고 있다 | 알지 못한다 | 있다 | 없다 |
| 복지관 담당자 | | | | |
| 의사 혹은 약사 | | | | |
| 경찰 | | | | |
| 학교교사 | | | | |
| 아파트관리인 | | | | |
|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 | | | | |
| 기타() | | | | |

14.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 새터민이라는 본인의 처지를 것을 어떻게 알려
십니까?

- ① 떳떳하게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만난다.
- ② 새터민이라고 하면 왠지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밝히지 않는다.
- ③ 북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연변에서 왔다고 말한다.
- ④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때 북에서 왔다고
말한다.
- ⑤ 기타()

15. 새터민이라서 다음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
를 해 주세요.

| 문 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 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직업이나 직장 구하는데 차별을 당한다. | | | | | |
| 2. 같은 일을 해도 남한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 | | | | | |
| 3. 북한 출신이라서 승진에 차별을 받는다. | | | | | |
| 4. 북한 출신이라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을 당한다. | | | | | |
| 5. 직장, 교회 등 각종 공동체에서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 | | | | | |
| 6. 학교나 단체에서 차별을 받는다. | | | | | |

16. 차별경험에 대한 귀하의 대응은?

- ① 직접 항의
- ② 인권 단체에 신고
- ③ 남한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 ④ 교회나 절, 성당에 가서 기도
- ⑤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
- ⑥ 그냥 묵묵히 참음
- ⑦ 차별당한 사실을 숨긴다. ⇨ ⑥,⑦번 응답자 16-1번
- ⑧ 기타_____

16-1. 참거나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몰라서
- ②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 ③ 보복이 두려워서
- ④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 ⑤ 기타 _____

17. 새터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문 항 | 매우필요하다 | 약간필요하다 | 보통이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1. 남한정부 | | | | | |
| 2. 지방자치단체 | | | | | |
| 3. 시민사회단체 | | | | | |
| 4. 남한사람들의 이해 | | | | | |
| 5. 새터민 본인들 | | | | | |

18. 다음 사항에 대한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하세요.

| 문 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 | | | | |
| 2. 새터민도 일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 결정하고 정당한 보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보장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 | | | |
| 3. 생김새나 말투가 다르다고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 | | | | |

| 문 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 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4. 성별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 | | | | |
| 5. 새터민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 | | | | | |
| 6. 새터민에게도 국내,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 | | | | | |
| 7. 새터민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강제적인 의학적 검사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 | | | | |
| 8. 새터민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 | | | | |
| 9. 새터민도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 | | | |
| 10. 소수집단이나 이주민, 선주민 등 주류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 | | | | | |

19. 다음 문항을 읽고 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하세요.

| 문 항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모르 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느낀다. | | | | | |
| 2. 내 자신의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 | | | | |
| 3. 나는 내가 사는 곳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낀다. | | | | | |

20. 새터민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21. 현 거주지에서 다음 일들에 대해서 귀하께서 얼마나 도움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가장 적절한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문 항 | 큰 도움을 받았다 | 약간 도움을 받았다 | 보통이다 | 별로 도움이 없었다 | 전혀 도움이 없었다 |
|---------------------------------------|-----------|------------|------|------------|------------|
| 1. 거주지 정보제공 | | | | | |
| 2. 취업정보제공 | | | | | |
| 3.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연결 | | | | | |
| 4. 정착에 필요한 업무해결 (전입신고, 기초대상자 신청 등) | | | | | |
| 5.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 | | | | |
| 6. 가정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상담 | | | | | |
| 7. 지역시설 이용안내 | | | | | |

22. 귀하는 다음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용한 적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문 항 |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 도움이 된 정도 | | | | |
|-------------|---------------|-----|----------|--------|------|-----------|-----------|
| | 예 | 아니오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보통이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1. 정착금 | | | | | | | |
| 2. 정착가산금 | | | | | | | |
| 3. 주택지원 | | | | | | | |
| 4. 주택교환 | | | | | | | |
| 5. 취업장려금 | | | | | | | |
| 6. 취업보호제도 | | | | | | | |
| 7. 직업훈련(무상) | | | | | | | |
| 8. 학비면제 | | | | | | | |
| 9. 대학입학특례 | | | | | | | |
| 10. 생계급여 | | | | | | | |
| 11. 의료보호 | | | | | | | |
| 12. 국민연금 | | | | | | | |

다음은 귀하와 귀하가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 이 질문들은 단순히 통계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3. 귀하는 언제 탈북하셨습니까?
 - ① 북한을 떠난 시기는? _____년 _____월
 - ② 남한에 들어온 시기는? _____년 _____월

4. 귀하는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동안 어디에 사셨습니까?
나라명 또는 지역이름 : _____

5. 귀하는 혼인을 하셨나요?
 - ① 예 ⇨ 5-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요 ⇨ 6번으로 가세요.
 - 5-1. 혼인을 하셨다면 언제 하셨나요? _____년 _____월

 - 5-2. 귀하의 부부 결혼유형은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북한에서 결혼한 후 아내(남편)와 함께 왔다.
 - ② 북한에서 결혼했지만 혼자 와서 남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③ 북한에서 결혼했지만 혼자 와서 북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④ 북한에서 결혼했지만 혼자 와서 다른 나라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⑤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남한에 와서 남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⑥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남한에 와서 북한출신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⑦ 북한에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남한에 와서 다른 나라 여성(남성)과 결혼하였다.
 - ⑧ 기타 _____

6. 귀하는 현재 일(직업)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6-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요 ⇨ 7번으로 가세요.

6-1.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고 그 일을 함으로써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게 되는지도 적어 주세요.

직업 : _____ 월 소득 : _____ 원

6-2. 귀하는 현재의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약간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⑥ 직업이 없다

7. 귀하 가족의 한 달 수입은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원

8. 귀하 가족의 한 달 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해 주세요.

- 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②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③ 기타가족의 근로·사업소득 ④ 재산소득(이자, 임대료 등)
⑤ 정부로부터의 도움 ⑥ 사회단체로부터의 도움
⑦ 친척 및 이웃의 도움 ⑧ 강연 및 강사료
⑨ 주식 및 복권 ⑩ 기타 : (_____)

9. 귀하 가정의 전체 소득은 생활하기에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충분하지는 않으나 별 지장없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10. 귀하 가정의 빚(부채)이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_____ 원

1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자택 전세 월세 사글세
정부임대아파트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더부살이
[교회 등 사회단체나 NGO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쉼터
학교 기숙사 직장기숙사 기타(_____)

12. 북한이나 제3국에 가족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2-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 13번으로 가세요.

12-1. 북한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답해주세요.

| 본인과의 관계 | 출생년도(나이) | 성별 | 현거주지 | | 남한이주 계획(보기참고) | 연락 가능한 경우 표시 |
|------------|----------|----|------|-----|------------------|-----------------|
| | | | 북한 | 제3국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보기> 남한이주계획

- 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② 형편이 나아지면 계획할 것이다.
 ③ 계획이 전혀 없다. ④ 불가능하다

12-2. 귀하는 북한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12-3으로 가주세요) ② 아니오

12-3. 그 액수는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_____ 원

*** 결혼한 여성분들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다음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귀하의 남편이 했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문 항 | 매우자주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가끔 있었다 | 전혀 없었다 | 잘 모르겠다 |
|--|-------------|-----------|-----------|-----------|-----------|
| 1. 남편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한다. | | | | | |
| 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던졌다. | | | | | |
| 3. 나의 팔을 비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발로 찼다. | | | | | |
| 4. 부부싸움에 다쳐서 병원에 갔거나 오랫동안 아팠다. | | | | | |
| 5. 나에게 고함지르거나 소리를 질렀다. | | | | | |
| 6. 성관계를 갖기 위해 나에게 무력(때리기, 붙잡기, 흉기사용하기 등)을 사용하였다. | | | | | |
| 7.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그러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 | | | | |

14. 현재 귀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 적어 주십시오. 아래 보기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번호를 써 주세요.

| 본인과의 관계 | 출생년도 (나이) | 태어난 곳 | | 성별 | 종교 | 학력 | | 직업 | | 건강상태 (보기참조) | 동반탈북 (유.무) |
|------------|--------------|-------|----|----|----|----|----|----|----|----------------|---------------|
| | | 남한 | 북한 | | | 남한 | 북한 | 남한 | 북한 | | |
| 응답자 본인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년() | | | | | | | | | | |

<건강상태 보기>
 ① 매우 건강하다 ② 오랫동안 질병을 갖고 있다
 ③ 장애를 갖고 있다 ④ 질병과 장애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심층면접조사에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께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신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층면접 희망지원자 이름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